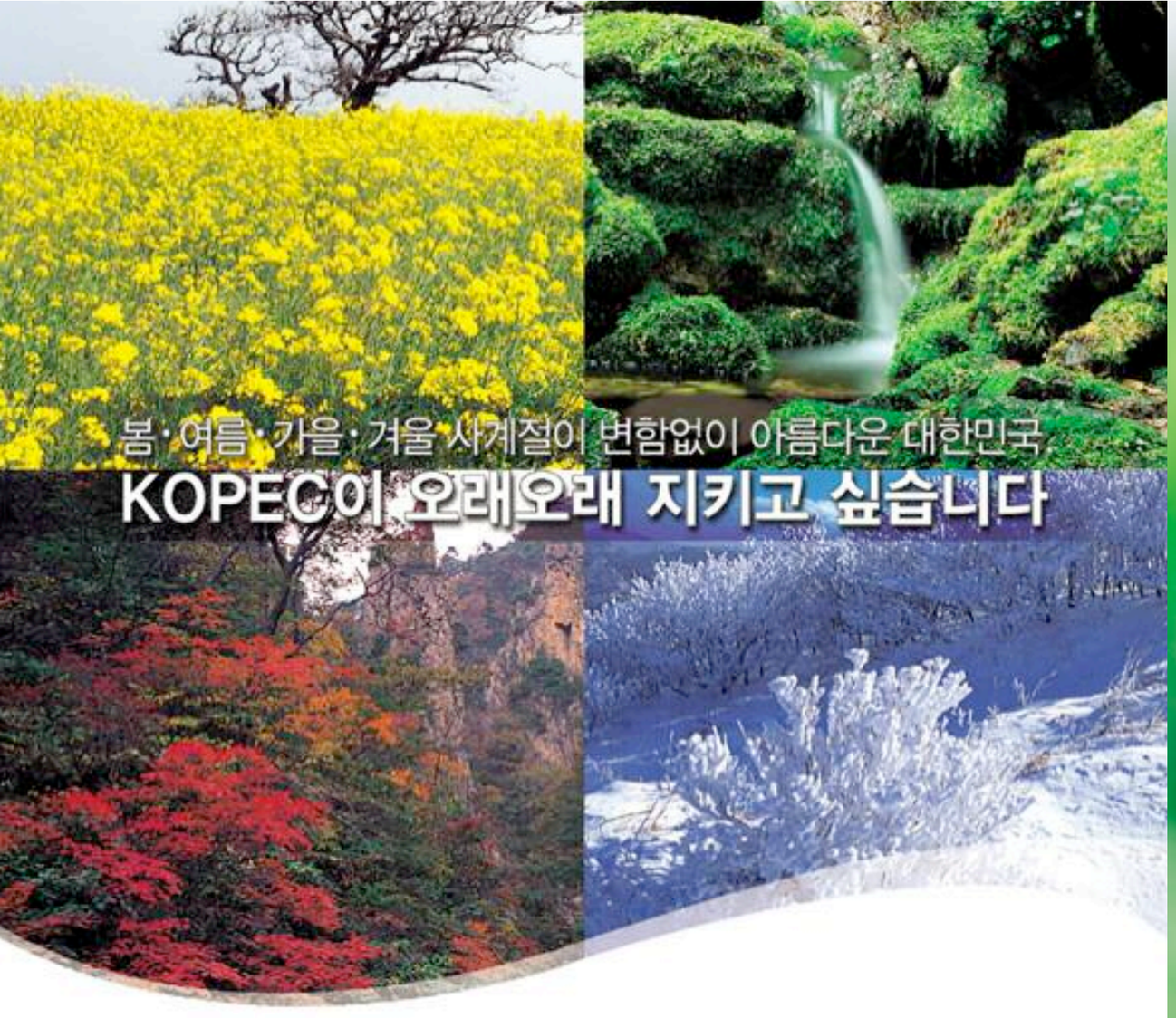


여름 지나 가을, 겨울이 오면 또 이듬해 봄이 다시 찾아오는 것처럼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는 건 자연뿐이라고들 말합니다.
그러나 최근 몇년간 나타난 세계적인 기상이변과 함께 우리나라의 기후와 자연생태계도 이제 예전 같지는 않습니다.
경제 활동이 활발해 질수록 높아지는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우리의 자연 생태계도 깨끗하게 지키는 원자력 에너지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전기의 40% 이상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사계절이 변함없이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오래오래 지키기 위하여 KOPEC이 세계 최고의 원자력 발전소를 설계 · 건설하고 있습니다.

Anytime, Anywhere... ***KOPEC is all around you***

고리원자력발전소 울진원자력발전소 영광원자력발전소

KOPEC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www.kopec.co.kr

KOPEC famil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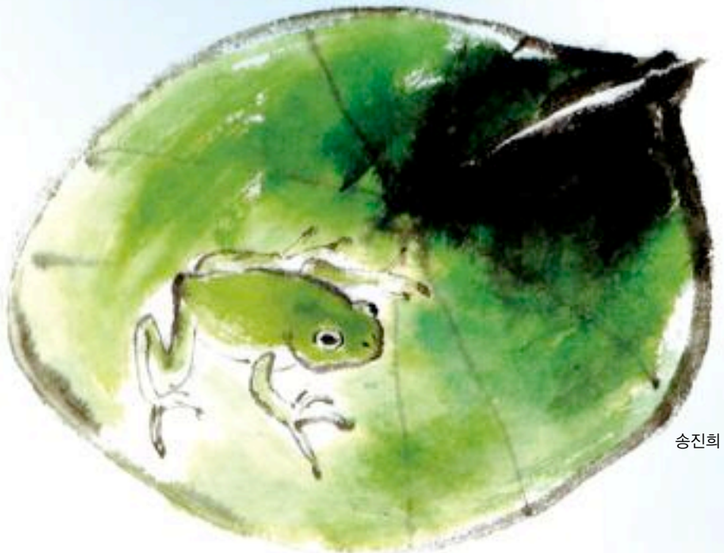
한국전력기술 | www.kopec.co.kr | 통권 329호

2009 06

6월의 소리

전날 개구리 울음소리 시끄럽더니
소낙비 오는 소리에
마음 속 시름까지 씻어내고

비온 뒤 갠 아침
크게 기지개 펴는 팔목에
새로 힘이 들어간다-



송진희 그림

2009년 6월호(통권 329호)
발 행 일 2009년 6월 10일
등 록 일 1983년 7월 20일
발 행 인 안승규
발 행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주 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57
전 화 031-289-3114
홈페이지 www.kopec.co.kr
인 쇄 길성인쇄(02-2279-8044)

표지사진 : 털중나리, 온몸에 잔털이 있다. 참나리는 둥근 점이 꽃잎 전체에, 털중나리는 길쭉한 점이 꽃잎 중심에 퍼져 있다. 잔털이 없으면 중나리이다.

CONTENTS

04 K-Message | 제18대 안승규 사장 취임사
06 KOPEC NEWS | 안승규 신임사장 취임 외
10 敎 & 感 | '체인지(體認智) 교육'을 실시하며
12 Teamwork | 배관자재기술 스터디그룹
16 우체통 | 원자력일일교사로 교단에 서다 외
20 도전 IT전문가 | 바로 버스를 만나는 운행정보
22 Benchmarking & Globalization | NACE Corrosion-2009를 다녀와서
24 함께하는 세상 | 인턴사원과 함께 한 사과 열매 따기
26 일하며 즐기며 | 한기테니스회
28 카메라 취재 | 꽃보다 직장보육시설
30 우리가족 만세 | 원자력기술처 이규복 차장 가족
32 테마기획-세계속으로 | 축복받은 성 룩소르
36 Pioneer | 필로 판즈워스
38 웰빙 KOPEC | 초여름 달아난 입맛을 붙들다
40 건강 100세 | 거북목 증후군
42 Inside Outside | 동호회동정 외
45 책읽어주는 남자 | 요재지이 1~6
46 퀴즈한마당 | 숨은그림 찾기 외
47 KOPEC MAN | 제44회 전기의 날 국무총리표창 수상 김은기 처장

제18대 안승규 사장 취임사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갑시다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새로 여러분과 한가족이 된 안승규입니다. 먼저 오늘 행사를 위해 귀한 걸음 한 임직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1973년에 현대건설에 입사하여 국내 현장과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카다르, 인도, 말레이시아, 태국, 이란 등 해외 플랜트 현장 근무와 사업본부장으로 35년 6개월 근무한 후 현대엔지니어링에서 2개월 동안 근무하였습니다. 그 동안 외부에서 보아왔던 한국전력기술은 업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전문 기술회사였습니다. 최고급 · 최상의 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당사에서 제가 가진 Plant EPC 공사 영업 및 수행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꿈을 실현하고자 지원하여 기회를 얻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임직원 여러분!

오늘 저는 발전소 설계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전력기술(KOPEC)에서 여러분을 만나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과 원자력 르네상스에 따른 기회의 갈림길에서 저에게 맡겨진 책무를 생각할 때 막중한 사명감과 함께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동안 KOPEC은 원자력 및 화력발전소 설계분야의 기술자립과 한국형 발전소 노형 개발 등 헌신적인 노력으로 값진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여기 있는 임직원 여러분과 선배들의 피땀 어린 노력과 열정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진취적인 경영혁신을 통해 지금의 성과를 일구어 낸 그간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친애하는 KOPEC 임직원 여러분!

KOPEC은 지난 30여 년간 구성원 전체가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 원자력발전소 및 화력발전소를 지속적으로 설계해 오면서 세계에서 가장 앞선 기술력과 경험을 갖춘 우수한 회사로 성장하였습니다. 발전소 분야의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국가 에너지 자립에 큰 역할을 해왔으며, 안전성과 경제성이 뛰어난 세계 최고 수준의 친환경 발전소를 건설하였습니다. 또한 뛰어난 사업관리 기술로 인천공항 등 대형 인프라 건설사업에 참여하였으며, 정부의 녹색성장에 발맞추어 탈황 · 탈질 등 환경분야에서도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여 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임직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회사를 둘러싸고 있는 경영환경은 글로벌 경기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생존을 위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정부의 경영선진화 일정에 따라 올해 20%의 지분매각과 2012년까지 추가 20%의 지분매각, 인력감축 및 제도개선 등 많은 변화가 예정되어 있는 등 극복해야 할 과제가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같은 현안과제를 해결하고 세계 최고의 기술회사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전 직원의 적극적인 노력과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높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는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업무에 대한 현황파악을 통해 KOPEC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성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경영

목표와 전략을 제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KOPEC에 대한 저의 소신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명품기술로 지속가능한 성장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신기술을 보유한 회사만이 최후까지 살아남을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독자적 신기술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둘째, 해외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국내시장의 성장한계를 극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발전소에 대한 독점적 수주의 소극적 전략에서 과감히 탈피하고 해외시장에 적극 진출함으로써 미래의 일거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미국, 유럽, 중국 등 차별화 전략을 다양화하여 해외시장에 적극 진출하고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정보를 선점하도록 할 것입니다.

셋째, 공격적인 사업다각화로 사업영역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발전소 설계 및 사업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KOPEC을 EPC 일괄서비스를 제공하는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기술회사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수익중심의 경영을 실천해야 합니다. 모든 사업에 철저한 원가개념을 도입하고 전 직원의 마인드를 비즈니스화 하여 수익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원가관리 및 경제성 분석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하여 수익성 위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생산성 증대를 목표로 매출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궁극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1차 목표로 생산성 1인당 3억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섯째,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글로벌 인재양성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화된 글로벌 핵심기술 개발을 위하여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글로벌 인재양성 프로그램의 확대와 인재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도전적이며 저돌적인 직원을 우대하는 성과와 능력중심의 인사제도를 과감히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경제위기 상황을 직시하고 정부의 일자리 창출과 경기활성화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Job sharing 등 일자리 창출과 경기 활성화에 적극 동참하고 중소기업지원 내실화와 투명성 제고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기업 선진화 계획 등 정부정책은 노동조합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의를 통해 진행함으로써 핵심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도 높은 윤리경영 실천과 상생의 노사협력문화를 정착하겠습니다. 윤리경영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여 청렴한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고, 노동조합과는 열린 대화채널을 통해 상호 신뢰와 존중에 입각하여 노사현안을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KOPEC 가족 여러분!

경영은 끊임없는 변화와 위기관리의 연속입니다. 지속적으로 변화하지 않고는 내일을 기약할 수 없습니다. KOPEC의 경영을 책임진 사장으로서 약속합니다. 저의 모든 역량을 회사의 발전에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KOPEC을 항상 즐거움이 넘치고 웃음꽃이 피는 재미있는 일터로 만들 것입니다. 저의 열정과 헌신을 통해 여러분 모두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우뚝 서게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KOPEC의 일원으로서 무한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인간 · 환경 · 기술이 융화되는 세계 최고의 회사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무한한 기회와 가능성이 있는 해외로 함께 나아가 봅시다.

끝으로 버나드 쇼(G. Bernard Shaw)의 말씀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환경을 탓하지 말라. 세상을 이끌어가는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환경을 찾아 다니고, 찾을 수 없으면 그 환경을 만드는 사람이다." 우리 모두 어떠한 위기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마음을 한곳으로 모아 세계 최고의 기술회사로서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갑시다. 다가오는 미래에 새로운 희망의 배를 띄움으로써 우리 모두 힘을 합쳐 함께 나아갑시다. KOPEC 가족 여러분의 지속적인 참여와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5월 25일

사장 안 승 규

KOPEC NEWS

#01
안승규 신임사장 취임

신임 안승규 사장이 5월 25일 오후 3시 본사 6층 대강당에서 전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하였다. 회사는 이날 오전 임시주총을 열어 사장추천위원회 공모로 추천된 안승규 현대건설 부사장을 신임사장으로 선임하였다. 안승규 사장은 고려대 기계공학과를 졸업 후, 1973년 현대건설에 입사하여 플랜트 사업담당 부사장 및 현대엔지니어링 부회장을 역임하였다. 이날 취임사에서 안승규 사장은 'KOPEC이 세계 최고의 전문기술회사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명품기술로 지속가능한 성장 토대를 마련하고 해외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국내시장의 성장한계를 극복하며 수익중심의 경영을 실천할 것을 당부하였다.

#02
그리스 GRR-1 연구로 설계개선용역 계약 체결

5월 14일 그리스 아테네에서 그리스 국립과학연구소(NCSR Demokritos)와 '그리스 GRR-1 연구로 설계개선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기술평가에서 100점을 받아 세계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프랑스의 아레바(AREVA), 아르헨티나의 인밥(INVAP)을 제치고 국제공개경쟁입찰을 통한 사업수주에 성공하였다. 이번 계약을 통해 1960년대에 건설된 그리스의 연구용원자로 냉각시스템 교체 이외에도 노심해석, 시공감독 등 기술자문도 함께 진행하게 된다.

#03
영광솔라파크/고리풍력발전 CDM 사업 UN 등록

4월 22일 영광솔라파크 / 고리풍력발전 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 청정개발체제) 사업을 국제기구인 UNFCCC(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성공적으로 등록하였다. 각각 영광과 고리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설치되는 3MW 태양광발전설비(영광솔라파크)와 750kW 풍력발전기(고리풍력발전)는 연간 4,248 MWh의 전력을 생산해 기존 화석연료에 의한 발전을 대체하여 2,680톤에 달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CDM 사업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실적은 사업주인 한국수력원자력에 탄소배출권(CERs Certified Emission Reductions) 형태로 지급되며 우리회사는 이 중 10%를 성공보수로 받는다.

#04
APR+ 표준상세설계개발 사업 수주

한국수력원자력에서 발주한 'APR+ 표준상세설계개발 BOP 및 플랜트 종합설계'와 'APR+ 표준상세설계개발 NSSS 설계' 사업을 4월 30일 동시에 수주하였다. 원전 수출산업화를 목적으로 추진중인 지식경제부 정책과제 '원전기술발전방안(Nu-Tech 2012 : Nu-Tech 2015에서 과제기획 변경)' 계획에 따라 총괄 주관기관인 한국수력원자력과 지식경제부간 협약에 근거하여 우리회사가 위탁기관으로 참여하는 사업이다. 이번 계약은 2009년 5월부터 2010년 3월말까지 약 1년에 걸쳐 진행되며 향후 APR+ 표준상세설계개발이 이어질 전망이다. BOP/플랜트 종합설계분야에서는 사업관리체계 개발, 설계관리체계 수립, 경제성 및 건설성 평가, 개념 및 기본설계 업무를, NSSS 설계분야에서는 표준상세설계 기획 기술지원, 설계기준서 작성, 연계업무 수행 및 자료관리, 설계변수 분석 및 설계자료 작성, System Design Requirements & Description 작성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05
일산열병합 ESCO사업 수주

한국동서발전에서 발주한 일산열병합 1~6 HRSG 배열회수 ESCO사업을 5월 6일 수주하였다. 이 ESCO사업은 연간 에너지절감량이 약 180,000Gcal로 국가적 경제적 수익성은 1년 이내, 사용자 수익성은 3년 이내로 정부 에너지이용 합리화 정책에 맞추어 기존 시설을 에너지절약시설로 설계, 공급, 시공, 시운전, 성능보증까지 일괄사업으로 수행하게 된다. 또한 폐열을 활용함으로써 사용자는 CO_2 저감으로 부가수익이 기대된다.

#06
김주완 상임감사 영광현장사무소 방문

김주완 상임감사는 5월 12일과 13일 영광현장사무소를 방문하였다. 먼저 한국수력원자력의 심규열 영광원자력발전본부장을 예방하고 우리회사가 수행하는 영광발전소 가동원전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통해 양사간 상호이해와 협력관계를 증진하고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함께 노력할 것을 합의하였다. 이어 현장사무소를 방문하여 직원들의 업무현황과 고충을 듣고 격려하는 자리에서 직원 모두는 열정과 패기를 갖고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함으로써 사업주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우리를 전적으로 믿고 맡기는 상호 동반자적 관계가 되어야 할 것과 직원들의 현장 실무경험은 향후 여러 다양한 사업수행을 통하여 명품설계의 귀한 밑바탕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로써 김주완 상임감사는 지난해 8월 취임이후 우리회사 원자력발전소 현장사무소 4곳을 모두 방문하여 사업주에게 우리회사 수행사업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회사 직원의 근무사기를 진작시키고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주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07
캐나다 AMEC NSS사와 MOU 체결

원전관련 기술 및 사업협력을 통한 캐나다 원전시장 진출 기반 마련을 위해 캐나다 AMEC NSS사와 4월 17일 양해각서(MOU)를 서면으로 체결하였다. AMEC NSS사는 영국 에너지 기술기업인 AMEC의 자회사이다. 양사간의 협력 범위는 CANDU형 원전을 포함한 원전 설계, 엔지니어링, 분석, 구매지원, 관련 기기 공급 및 원전 운영 지원 등이다. 이번 협약을 토대로 양사는 부족한 기술력에 대한 상호보완적 차원의 기술 협력을 통해 기술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08
두산중공업과 Management Workshop 개최

5월 15일 두산중공업과 대전 유성호텔에서 제14차 Management Workshop을 개최하였다. 우리회사와 두산중공업은 2004년 원자력사업 및 원자력 기술자립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상호협력협

약서를 체결하고 꾸준히 워크숍을 개최해왔다. 이번 워크숍에는 우리회사 원자로설계개발단장과 두산중공업 원자력BG장을 비롯하여 양사의 원자력 사업책임자 및 주요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지난 워크숍의 주제별 진행현황을 점검하였으며, 총 5건의 신규항목을 도출, 주제별로 필요성 및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해 발표 및 논의를 하였다.

#09

여수화력 제2호기 설비개선사업 건설공사 착공식 참석

우리회사가 설계하는 여수화력 제2호기 설비개선사업 건설공사 착공식이 5월 20일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화력 부지에서 열려 우리회사에서 플랜트사업개발처장 홍문성 상무와 사업책임자 오상훈 부장이 참석하였다. 여수화력 2호기의 사용연료를 중유에서 석탄으로 전환, 전력생산 원가를 절감하고 이용률을 높여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대기 배출 규제치보다도 훨씬 강화된 기준을 채택한 친환경 설비 도입으로 연간 총 6,200톤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도 줄일 수 있어 경제성을 갖춘 친환경 발전소로 거듭날 것으로 보인다.

#10

대한기계학회와 춘계 학술대회 개최

대한기계학회와 공동으로 2009년도 재료 및 파괴부문(회장 : 기계기술처 진태은 처장)의 춘계 학술대회를 4월 23일과 24일 제주대학교에서 개최하였다. 대한기계학회 재료 및 파괴부문은 기계학회 내의 10개 부문 중 최대규모(전체 정회원 13,000명, 재료 및 파괴부문 정회원 2,100명)로서, 이번 학술대회에는 산· 학· 연에서 약 200명이 참석하여 각종 기기, 설비의 건전성 평가관련 130여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특히 이종재 용접부 건전성 및 중수형 원전 기기 건전성 평가 등 원전 현안 관련 특별세션이 구성되어 원자력계의 현안을 발표, 토의하는 자리도 마련되었다.

#11

협력업체 직원 전산교육 실시

5월 19일부터 22일까지 본사 PC 교육장에서 우리회사에서 근무하는 삼일기술단 등 16개 협력업체 직원 35명을 대상으로 전산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자체교육을 시행하기에 어려운 협력업체 직원의 설계 역량을 강화하고 하도급 설계 성과물의 품질향상을 위해 마련되었다. 교육과정은 AutoCAD의 기본교육과정, 고급교육과정, 3D개념설계과정 등이다. 앞으로도 협력업체와의 상생관계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기울일 예정이다.

#12

가동원전사업 발전소 기술세미나 개최

가동원전에서는 2009년도 제1차 발전소 기술세미나를 5월 21일 한국수력원자력 울진원자력 제1발전소 대회의실에서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이번 기술세미나는 울진1발전소와 관련있는 '원전화재위험도분석(FHA) 적용방법론' 등 3개의 주제발표와 이에 대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었다. 가동원전사업그룹에서는 발전소별 특성을 고려한 기술세미나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14

금호 TDF연소 열병합발전소 준공식 참석

우리회사가 발전소 설계 및 감리 역무를 수행한 금호석유화학 여수 제2열병합발전소 준공식이 5월 21일 여수산업단지 내 발전소 건설부지에서 열려 우리회사에서 박치선 플랜트본부장이 참석하고 발주사인 금호석유화학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여수 제2열병합발전소는 국내 최초로 폐타이어를 원료로 사용하여 타이어 시편(3~20mm 절단된 타이어 조각)을 제조하여 석탄과 혼소하는 순환유동층보일러를 채용한 TDF(Tire Derived Fuel) 연소방식을 적용하여 설계되었다.

#14

당진화력 9,10호기 설계 관련 사내 설명회 개최

당진화력 9,10호기 설계 품질 향상을 위한 사내 설명회를 5월 14일 실시하였다. 이번 설명회는 발전소 자동 기동/정지 시스템(APS : Automatic Plant Startup/Shutdown System)에 대한 설계 절차 및 방법, 당진화력 7,8호기 실제 적용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각 분야 설계 담당자들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특히 시스템 설계와의 인터페이스 사항을 미리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다.

#15

영흥화력 3,4호기 관련 교육 개최

기계배관기술처에서는 5월 22일 영흥화력 3,4호기 설계시 대두되었던 기계/배관 분야 개선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자체 발굴한 설계 고려 사항 20여 항목과 발주자의 시운전 과정중 제기되었던 개선 요구 사항 20여종을 간추려 진행한 이번 교육을 통하여 회사 설계품질을 향상시키고 고객만족을 실천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였다.

김주완 상임감사 탈질촉매 제조시설 방문

김주완 상임감사는 5월 22일 박치선 플랜트본부장과 강릉과학산업단지내에 위치한 우리회사 저온탈질촉매분말 임가공 현장시설을 방문하였다. 우리회사는 세계적인 환경규제 강화정책에 대응하고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1999년부터 저온탈질촉매 개발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해왔다. 특히 세계최초 신물질을 이용한 탈질촉매 제조를 위해 총사업비 15억원을 투자하여 대영C&E(대표이사 : 노세윤)와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임가공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연간 3,000㎥의 탈질촉매를 생산하여 국내 화력발전소 등에 공급하고 있다. 김주완 상임감사는 이번 방문을 통해 지식경제부 지정 세계 일류상품인 저온탈질촉매 사업을 활용하여 녹색성장을 위한 정부정책에 부응하고 회사의 신성장 동력으로 적극 육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최명희 강릉시장을 예방하고 강릉시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에 우리회사의 참여방안을 논의하였다. 김주완 상임감사는 강릉시와 우리회사가 그동안 논의해온 신재생에너지 협력방안을 점검한 후 강릉시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최명희 강릉시장은 우리회사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은 물론 KOPEC이 사업 우선협상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였다.

핵심가치 공유와 확산을 통한 새로운 도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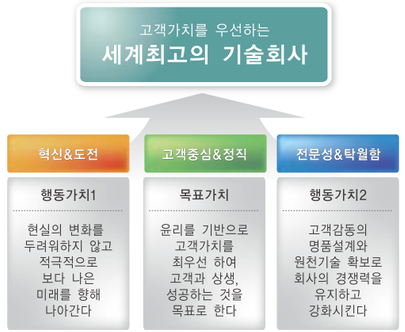
'체인지(體認智) 교육' 을 실시하며

김동현 / 기술기획처

글로벌화, 무한경쟁, 윤리성 강조, 혁신. 지난 수년 간 국내외 기업들이 직면한 환경변화를 표현한 단어들이다. 급변하는 경영환경에서 기업들은 현 난관을 극복하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왔다. 프로세스의 개선, 조직구조의 개편, 창의적 인재양성 등 여러 방면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시도해왔다. 그 중 기업문화 측면에서 선진기업들은 '핵심가치에 기반한 경영(Values-driven Management)' 에 주목하고 있다.

기업의 핵심가치란 기업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가치관이나 신념을 말한다. 이는 장기간 변하지 않는 기업 고유의 가치로서 급변하는 경영환경에서 회사의 정체성과 신념을 제시하며, 구성원들이 일체감과 소속감을 갖고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구심점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조직과 개인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기준과 원칙을 제공하는 경영의 계기판과 같은 존재다. 최근 다수의 선진기업은 사무실 액자 속에 머물며 뽀얀 먼지를 뒤집어쓰고 있던 핵심가치를 꺼내어 이를 실제로 작동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들은 핵심가치를 윤리와 경쟁력을 포괄하는 사업의 토대이자 성공유전자로 인식하고, 직원들의 행동에 구체적인 모습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갖가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GE는 잭 웰츠 회장이 80~90년대부터 강조한 핵심가치를 2004년 이후 '8 Values, 4 Actions' 로 재정비하여 사용하고 있다. 8 Values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How we do it)' 를, 4 Actions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What we do)' 를 제시하며 이같은 핵심가치를 직원 선발부터 임직원 평가까지 제도화하여 활용하고 있다. TOYOTA는 핵심가치를 최고의 효율 달성과 글로벌 사회에서의 내부통합을 위한 유용한 도구로 인식하고 1937년 창업 이래 암묵적으로 공유해온 가치들을 'TOYOTA Way' 로 체계화했다. 이를 통해 TOYOTA의 임직원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전 세계 임직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교육 및 각종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회사는 2007년 기업문화 수립 및 인재상 설정을 위한 진단작업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KOPEC 핵심가치를 설정하였다. 또한 2008년 교육가이드 책자(LR&DG) 발간을 통해 이를 선포하였다. KOPEC의 비전과 이념, 회사를 둘러싼 경영환경 및 강·약점, 선진기업 사례 등 다양한 관점을 분석하여 도출한 우리의 핵심가치는 '고객중심과 정직', '혁신과 도전', '전문성과 탁월함' 이다. 이 중 '고객중심과 정직' 을 목표가치로, '혁신과 도전', '전문성과 탁월함' 을 행동가치로 설정하였고 각 가치별 행동규범을 마련하여 모든 임직원이 업무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가치에 기반한 경영활동을 통해 효율성과 생산성을 향상시켜 '고객가치를 우선하는 세계최고의 기술회사' 라는 우리회사의 비전 달성을 지원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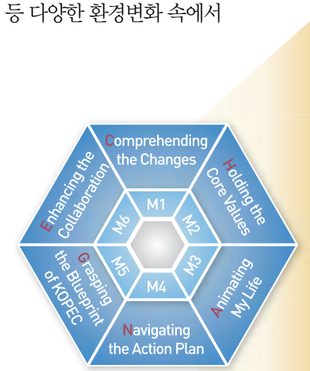


지난 4월 27일부터 시작되어 6월 30일까지 계속되는 '체인지(體認智) 교육' 은 이처럼 새롭게 마련한 회사의 핵심가치를 공유, 내재화하여 조직 내에 확산하고자 마련된 교육 프로그램이다. 먼저 핵심가치 정착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야 할 팀장급 이상 직위 보유자를 대상으로, 1박2일 합숙과정으로 총 13차수에 걸쳐 시행된다.

프로그램은 총 6개의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Comprehending the Changes' 에서는 국내 최고 수준의 명사를 초청하여 핵심가치의 중요성 및 변화의 필요성을 주제로 특강을 듣는다. 'Holding the Core Values' 에서는 KOPEC 핵심가치를 판화프린팅 작업으로 표현해 봄으로써 핵심가치를 내재화하는 시간을 갖는다. 저녁시간에는 'Animating My Life' 가 진행되는데 삶에서 '가치' 의 중요성을 되돌아보며 자기사명서를 작성해본다. 2일차 오전에는 'Navigating the Action Plan' 모듈을 통해 현업에 적용할 핵심가치 실천과제를 수립하고 자신의 가치와 회사의 가치를 정렬시켜 향후 지속적 실행을 위한 방법을 학습한다. 이어 오후에 진행되는 'Grasping the Blueprint of KOPEC' 모듈에서는 '가치신문' 을 제작해봄으로써 핵심가치가 실현되었을 때의 우리의 미래상을 그려보고 마지막 모듈인 'Enhancing the Collaboration' 에서는 함께 한 동료들과 Outdoor Activity를 통해 핵심가치 내재화 전파 및 추진의지를 다지며 과정을 마무리한다.

우리회사는 과거 발전소 설계 기술의 불모지에서 불과 30여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기술자립을 이루어내었다. 우리가 이처럼 급속히 발전할 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이었을까? 많은 요인들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손으로 우리 땅에 발전소를 짓고야 말겠다는 '도전정신' 과 '열정' 이 가장 큰 원동력이 아니었을까? 도전과 열정이라는 가치를 가슴에 품었기에 많은 어려움과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었을 것이다.

원자력 르네상스,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등 다양한 환경변화 속에서 이제 우리회사는 새로운 도약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과거 우리회사가 경험했고, 많은 회사가 주목하듯이 '핵심가치에 기반한 경영' 의 실행은 새로운 도약의 훌륭한 지렛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1박2일간의 짧은 교육으로 핵심가치 기반 경영을 완성할 수는 없겠지만 이 교육을 시발점으로 조직의 전 구성원이 핵심가치를 공유하여 강한 기업문화를 꽃 피워나가길 기대해 본다. '세계최고의 기술회사' 라는 우리의 비전을 실현할 그날까지!



1. Comprehending the Changes
공기업 경영환경의 변화와 가치경영의 중요성을 인식합니다.

2. Holding the Core Values
핵심가치를 나타내는 판화 프린팅 작업을 통해 KOPEC 핵심가치를 이해하고 내재화합니다.

3. Animating My Life
과거-현재-미래의 나의 삶을 성찰해보며 자기 사명서를 통해 향후 방향을 설계합니다.

4. Navigating the Action Plan
현업에 적용할 핵심가치 실천 과제를 수립하고 지속적 실행을 위한 방법을 학습합니다.

5. Grasping the Blueprint of KOPEC
'가치신문' 제작을 통해 핵심가치가 실현됐을 때의 KOPEC의 미래상을 그려봅니다.

6. Enhancing the Collaboration
함께 한 동료들과 Outdoor Acrivity를 통해 핵심가치 내재화 전파 및 추진 의지를 다집니다.

Teamwork

배관자재기술
스터디그룹

김용환 / 배관기술처 차장

배관자재기술 스터디그룹은 배관, Fitting,각종 밸브류 및 밸브원격 조작장치,Strainer,Trap, 금속 신축이음과, 플렉시블 호스, 격납물 관통부 등 배관 계통을 구성하는 각종 배관 기자재에 대한 지식을 연구/정리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그룹원의 기술력 함양을 위한 자율 교육 및 업무 수행시 발생한 기술요건의 노하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설계적용 및 후속 업무 관련자에게 전파하고 지식공유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05년 설립 이래 4년 여간 각 관련분야 전문가를 모시고 세미나를 개최하는 한편 각 그룹원의 정리된 관련지식을 자율 교육을 통하여 전파함으로써 다양한 경험과 실무 이론을 공유하는데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발전소의 배관 계통은 인체의 혈관에 비유되며, 그 구성요소가 매우 다양하므로 각각의 품목 선정에 기술적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선정된 재질 혹은 요건에 대하여 기능, 구조 및 작동성, 내구연한 등을 정확하게 판단하여 안전성을 바탕으로 경제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배관 계통의 기자재에 대한 요소 기술과 함께 이들 기자재에 대한 시공기술 요건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반영하여 회사의 기술력을 향상시키고 최상 품질의 발전소를 설계하는데 배관자재기술 스터디그룹의 궁극적인 목표가 있다.

이러한 기본 목표를 바탕으로 배관자재기술 스터디그룹은 2012년까지 로드맵을 기본으로 각 그룹원의 개인별 목표를 설정하여 분기별로 점검하며 문제점 발생시 그룹원의 토론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의 **윤종대 부장**은 스터디그룹의 정신적 지지대이다. 오랜 경험으로 폭넓은 실무 지식을 소유하고 있으며 뛰어난 일 처리 능력으로 다양한 문제를 막힘 없이 해결하여 소리없이 존재감이 크다.

배관자재기술 스터디그룹장인 이기석 차장은 논리적인 이론에 근거한 합리적인 판단과 기술기준(Code)에 대한 해박한 지식에 자신이 먼저 솔선하는 리더십으로 배관자재기술 스터디그룹을 2008년 우수그룹으로 이끌었다.

김용환 차장은 각 사업의 EDB(Engineering DataBase) 관리 및 제작 지시서(RTM) 발행을 담당한다. 자재기술에 대해서 많은 경험을 갖추고 업무의 특성상 여러 관련사 직원들과 함께 일하며 관련사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배관스풀 공급에 대한 문제점과 어려움을 해결하고 있다.

배관자재기술 스터디활동 중 용접에 관련해서 **권영학 차장**을 빼고는 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용접분야에 대해서 뛰어난 식견을 자랑하는 용접분야 기술사이다. 재료에 대해서도 많은 전문지식을 갖춰 재료 전문가로 불릴 만하다.

김기혁 차장은 자재기술 분야에서 가장 난해하다고 알려진 배관시공기술 규격서 작성을 담당한다. 시간을 쪼개 틈틈이 공부한 일본어 실력으로 일본 기술서적을 번역하여 실무에 적용하는 등 조용하면서도 열성적인 업무능력을 소유하고 있다.

정진웅 차장은 태안 7,8호기, 포스코파워 ESCO, 분당복합화력 ESCO, 나이지리아 가스 플랜트 등 다양한 사업을 무리없이 수행하고 있다. 화력발전소의 관련 직원들도 기술력을 인정해주는 화력 배관자재분야의 독보적인 전문가이다.

이상화 차장은 모터구동 밸브 등 밸브 구조와 건전성 및 성능평가가 전문 분야로 밸브 구조와 이론에 대해서 누구보다 해박한 지식을 갖추고 있다. 꼼꼼하며 신속한 업무처리로 엄청난 분량의 공급자 문서를 하나하나 검토하여 실수 없이 처리하는 자재기술의 숨은 실력자이다.

자재기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공장제작 배관을 담당하는 **반세형 차장**은 배관 관련 규격 요건에 대해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다. 업무 중이나 모임에서나 항상 주변을 잘 챙기고 많이 배려하며 그룹원 모두를 편하게 해주는 따뜻한 감성의 소유자이다.

화력분야 배관자재 규격서 관련 업무를 주로 하는 **이윤규 대리**는 스터디그룹에서 여러가지 일을 가장 많이 하는 숨은 공로자이다. 그룹내의 궂은 일을 도맡아 하며 세미나 혹은 발표회 등 그룹 행사시 말없이 많은 고생을 하는 스터디그룹에서 없어서는 안될 일꾼이다.

입사 3년차의 **오창균 사원**은 항상 밝고 긍정적인 사고로 주변의 기대에 부흥하고 있다. 퇴근시간과 휴일도 없이 많은 기술 지식을 쌓는데 노력하는 모습이 차세대 한기인으로 기대된다.

이원배 차장은 신고리 1,2호기 현장에 근무하면서 현장의 문제점, 관심사항 등을 사진으로 전송하거나 직접 현장에서 확인하여 알려오는 등 배관자재기술 스터디그룹의 현장사무소라고 할 수 있다.

역시 신고리 1,2호기 현장에 근무하는 **김현정 대리** 또한 현장의 바쁜 업무에도 본사와 현장의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수행하여 스터디그룹 활동에 활력을 더하고 있다.

원자력일일교사로 교단에 서다

안남훈 / 기계기술처 차장

올해도 어김없이 원자력일일교사 신청을 받는다는 내용이 사내게시판에 올라왔다. 매년 과학의달과 스승의 날을 전후하여 원자력에 대한 차세대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의 '원자력일일교사' 활동에 우리회사를 비롯하여 원자력관련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큰 아이가 마침 그 또래인데다 원자력엔지니어로서 지난해도 관심이 있었지만 어찌어찌 하다 보니 신청시기를 놓쳤다. 그래서 올해는 염두에 두었다 잊지 않고 날짜에 맞춰 신청을 했다. 이왕이면 아이가 다니는 학교가 좋겠다 싶어 큰아이 담임선생님과 의논해서 수업일을 정하고 막상 신청을 하고 나니 걱정이 앞섰다.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교재를 작성해야 하는데 수준을 어떻게 맞춰야 하는지, 어떤 내용으로 해야 아이들이 어렵지 않고 재미있을지 고민이 되었다. 선생님은 참으로 대단하구나 하는 생각이 여지없이 들었다. 마음 한 구석에서 '괜히 신청했나' 하는 생각이 모락모락 피어나고 있을 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아이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부터 유심히 살펴 보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섰다. 아이는 아직까지는 시각적인 것을 좋아해서 주로 그림과 만화 영화를 좋아했다. 그래서 가급적 시각적인 만화와 그림을 가지고 교육자료를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았다.

먼저 기존에 원자력일일교사를 해본 분에게 관련 그림과 만화 동영상을 받고 원자력문화재단 홈페이지에 가서 알맞은 동영상을 내려 받아 파워포인트 문서로 교재를 작성했다. 아이들이다 보니 구체적으로 원자력에 대해 알리기보다 그린에너지와 연결해서 설명하기로 하였다.

5월 16일, 드디어 교실에서 성복초등학교 3학년 5반 담임선생님과 아이들을 만났다. 그 전에도 담임선생님을 뵌 적은 있었으나 일일교사로 선생님을 만나니 좀 어색했다. 선생님의 도움으로 수업 준비를 마치고 10시 40분부터 11시 20분까지 40분 수업을 시작했다.

먼저 에너지라는 주제로 수업을 시작했다. 식물, 물고기와 사람에게 있어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을 물었고 아이들은 빛, 물과 밥 등 근접한 대답을 했다. 사람을 기준으로 밥(탄수화물)을 섭취하고 이것이 에너지로 전환되는 과정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과정을 그림 등으로 설명했다.

다음으로 전기라는 것을 알고 있는지 물었다. 아이들은 전등, 냉장고, TV 등을 주로 이야기 했으며 전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물어보니, 한 아이가 풍력을 이용해서 만든다고 대답하였다. 대관령에 가서 본 적이 있다고 말하기에 여기에 이어 준비한 그린에너지에 대한 내용을 시작했다. 수력, 풍력, 태양광 발전과 바이오 등에 대해 설명하는데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곳을 여행하며 눈으로 직접 본 것이 많아 그린에너지에 대해 수업하는데 큰 문제가 없었다.

전기 생산과 지구 환경은 서로 반비례 관계임을 설명하고 이런 그린에너지를 이용하여 많은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 중요함을 설명했다. 그리고 원자력도 그린에너지임을 설명하면서 전에 우리 아이와 함께 울진원자력발전소 홍보관에서 찍은 사진을 보여주니 다들 한번 가 보았으면 하는 눈치다.

원자력발전소에 대해서도 빼놓지 않고 설명하고 한국수력원자력의 CF인 '푸른하늘 이야기'를 시청한 뒤 마지막으로 준비한 만화 동영상인 'Mr. HIM과 새로운 영웅 뉴프'를 보여주었다. 걱정했던 것보다 많이 좋아하고 재미있어 했고 원자력엔지니어로서 홍보대사의 역할을 잘 해냈다는데 뿌듯함이 컸다. 아이들에게 전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전기를 절약하는 방법 등을 설명하고 끝으로 원자력문화재단에서 준비한 수첩과 만화를 나누어 주고 수업을 마쳤다.

원자력일일교사로 수업준비를 하면서 선생님이라는 직업의 소중함과 우리 아이 학교에서 함께 수업을 해 보았던 것이 오랫동안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 같다. 큰아이도 그날 이후 원자력에 대해서 잘 아는 훌륭한 아버지를 둔 것에 친구들에게 꽤나 으쓱해 하는 눈치다. 기회가 있다면 원자력에 대해서 잘 알리는 것 또한 원자력엔지니어로서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한다. 원자력엔지니어로서 꼭 한번 경험해보라고 권하고 싶다.

초등학교 학생은 미래의 꿈나무이다. 수업을 하면서 원자력이 우리 가까이에 있고 아주 안전한 그린에너지라는 것을 알릴 수 있어 좋았다. 미래의 꿈나무에게 원자력의 안전성과 우리회사를 알리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확신한다.

농촌현장 체험학습

‘초롱이 둥지마을 두릅축제’에 다녀와서

정상용 / 기계기술처 과장

4월 25일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에 다녀왔다. 우리회사와 일사일촌(一社一村) 자매결연을 맺은 묵안리의 농촌현장 체험학습 행사인 ‘초롱이 둥지마을 두릅축제’에 참가하기 위해서다. 현장에서 복귀한지 얼마 되지 않아 본사 주관 가족단위 행사에 참여하여 심기일전하는 한편, 현장에서 보냈던 추억어린 경험을 되새겨 보고 싶었다. 우리회사는 2005년 설악면 묵안1리와 결연을 맺은 이래 분기마다 농번기 일손 돕기(모내기, 추수 등), 주택 개보수, 농산물 구매, 마을 환경정리 등 다양한 농촌 봉사활동을 펼쳐 왔다.

회사 앞에서 버스가 7시에 출발한다고 하여 혹시나 늦을까 하는 마음에 새벽 5시 30분부터 일어나 잠에 취한 아이들을 대충 챙기고 서둘러 회사로 향했다. 역시 일기예보처럼 하늘은 먹구름으로 뒤덮여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기세였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단비이긴 하지만 제발 오늘만은 잠시 기다려줬으면 하는 마음이었는데 아쉽게도 비에 바람까지 불어 모처럼의 가족여행이 순조롭지만은 않을 것 같았다.

회사에서 준비한 아침식사와 음료를 먹으면서 행사진행 일정을 소개 받았다. 행사주관 관계자분을 포함하여 직원과 가족 약 40명을 태운 회사버스는 목적지인 설악면 묵안마을로 출발했다. 아침부터 일어나 준비하느라 피곤했는지 아내와 아이들은 차에 타자마자 곯아떨어졌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도심을 달리던 차는 어느새 한적한 시골마을을 지나가고 있었다. 오랜만에 내린 단비에 길옆 실개천이 힘이 나는 듯 경쾌하게 흐르고, 길가 풀잎마다 싱그러운 빗물이 맺혀 있는 것을 보고 비로 인해 아쉬웠던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 받을 수 있었다.

마을에 도착하니 이장과 부녀회장 등이 반가이 우릴 맞이해 주었고 행사장에는 벌써 마을사람들이 모여 ‘제2회 초롱이 둥지마을 두릅축제’ 준비가 한창이었다. 평소에는 한적했을 시골마을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시끌벅적하게 떠드는 것을 보니 마을 사람들도 신이 난 듯 했다. 아주머니가 건넨 이 마을의 주인공 두릅으로 만든 두릅전과 매콤한 삼겹살 두릅꼬치에 막걸리 한잔을 들이켜니 이곳이 바로 두릅축제 현장임이 실감나기 시작했다.

두릅축제의 개막식과 함께 축제에 참가한 모든 사람의 건강과 행복을 비는 고사를 떠들썩하게 지내고 나서 본격적으로 두릅을 채취하기 위해 우리 가족은 단단한 각오로 두릅채취용 막대기를 오른손에, 커다란 비닐봉지를 왼손에 거머쥐고 드디어 산으로 올라갔다. 이런 대단한 각오로 올라간 사람이 어찌 우리 가족뿐이었으랴. 모두들 쌀쌀한 날씨에 움츠렸던 방금 전의 모습은 어디로 가고 하얀 우의를 입은 많은 사람들이 산으로 산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런 거창한 기대도 잠시, 생각했던 것보다 두릅이란 놈을 쉽게 만날 수가 없었다. 가지 끝에 달려 있어야 할 두릅은 온데간데없고 하얀 나뭇가지들만 덩그러니 있었다. 그래도 잔뜩 기대하고 온 아내와 우리 아이들을 실망시킬 수 없어 가시덩굴을 헤치고 더 깊이 더 높이 산속으로 들어가고 나서야 두릅을 채취할 수 있었다. 물론 그 대가로 많은 영광의 상처를 얻었지만 말이다.

쌀쌀한 날씨에 두릅 채취 하느라 산속을 여기저기 헤매며 잔뜩 고생하다 커다란 소득 없이 산을 내려와 보니 마을 아주머니들이 온갖 산나물이 가득한 비빔밥에 쑥향 그윽한 된장국을 준비해 놓은 게 아닌가. 매콤한 고추장과 그 위에 참기름 끼얹어 먹던 그 산나물 비빔밥, 그리고 쑥 된장국 맛이 지금도 입가를 맴돈다.

밥을 먹고 난 뒤에는 짚으로 계란 꾸러미 만들기 등의 짚풀공예, 생태 학습 등의 프로그램이 이어져 아이들을 즐겁게 했다. 게다가 마을 사람들이 우리같이 미숙한 사람들을 위해서 미리 따놓은 두릅을 조금씩 나누어 주어서 홀쭉한 우리의 비닐봉지가 어느 정도 풍성해졌다. 집 근처에 사는 형님 댁까지 나눠주며 내가 채취한 자연산 참두릅이라고 자랑할 정도로 말이다.

날씨와 추위로 인해 조금은 힘든 체험이긴 했지만 모처럼 가족과 함께한 즐거운 나들이였다. 결연마을과 보다 가까워져 앞으로 봉사활동을 갈 때면 더욱 반가울 것 같고 직접 수확한 두릅으로 봄의 맛과 향을 느낄 수 있었다. 앞으로 식탁위에 두릅이 올라올 때면, 그것이 비록 시장에서 사온 거라 할지라도 우리 가족은 추억어린 이 여행을 떠올리며 맛있게 먹을 것이다.

바로 버스를 만나는 운행정보

김중태 | 전력기술연구소 부장

요즘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려워 실업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잡쉐어링을 통해 인턴사원을 채용하는가 하면 반면에, 한편으론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인력을 절감하고 있어 왕대리 책상 주위의 변화가 무쌍하다.
사실 왕대리는 꼭 이런 구조조정이나 잡쉐어링 때문에 눈치가 보여 늦게 퇴근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실제로 늦게 퇴근해야할 만큼 책상에 일이 산적해 있다.

지구 온난화 문제 및 전력난 해소의 유일한 대안으로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수요가 국내외적으로 늘어나는 바람에 원자력발전소 수처리 설비 설계를 담당하는 왕대리의 일이 무척 늘어났다.

문제는 오버타임 근무를 할 경우 서울 집으로의 퇴근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왕대리의 회사는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하고 있어서 약 17대의 출퇴근 버스가 서울 잠실, 고덕동부터 경기도 수원, 부평 등까지 요소요소마다 1800여명의 직원들을 나르고 있어, 퇴근 버스를 탈 경우 집 앞이나 연계 전철역까지 원스탑으로 데려다 준다. 하지만 야근할 경우 이렇게 편리한 퇴근버스를 이용할 수 없어 시외버스와 지하철을 갈아타고 힘들게 집에 가야하는 불편함이 있다. 더 힘든 것은 서울-경기도간 연계버스의 배차간격은 보통 20~30분으로 도착시간을 잘 맞추지 못하면 한참을 정류장에서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특히 회사 정문을 나서는 순간 연달아 2대의 버스가 눈앞을 휙 지나가는 것을 보면 혈압이 순간적으로 상승한다. 다시 회사로 들어가야 할지 아니면 편의점 하나 없는 삭막한 정류장에서 찬바람 맞아가며 담배 한대 물고 하염없이 기다려야 할지 고민하면서 말이다.

한번은 회사 정문에서 380여미터 떨어진 버스정류장에 정차한 버스를 타려고 눈썹이 휘날리게 뛰다가 그만 넘어져 전치 일주의 부상을 입은 적도 있으니 오버타임 근무를 하면 항상 퇴근이 걱정이다. 물론 밤 9시에 출발하는 버스가 있기는 하지만 이 시간에 맞추어야 하고, 퇴근 버스처럼 여러 노선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갈아타기는 마찬가지여서 불편하기는 매 한가지다.

이런 고민스러운 상황이 지난해 말부터 인터넷을 이용하여 경기도 버스 운행현황을 알려주는 실시간 정보시스템이 제공되면서부터 말끔히 해소되었다. 편하게 회사에서 PC를 통해 경기도버스정보시스템(http://www.gbis.go.kr)에 접속한 후 화면 상단 중간에 있는 실시간 검색메뉴를 선택해서 정류장 검색난에 한국전력기술의 버스정류장 식별번호(ID) #29201을 입력하면 화면 하단에 주루룩 이 정류장을 지나가는 버스의 운행 및 도착 현황이 실시간으로 표시된다.

서울 잠실 나가는 버스 1001번- 15분후 도착, 야탑 가는 1116번- 26분후 도착, 강남역 가는 2002번- 11분후 도착, 5500-1번(종로2가)은 6분후 도착 등…….경기도버스정보시스템은 인터넷뿐만 아니라 휴대폰, ARS로도 동일한 정보를 제공한다. 휴대폰의 경우 통화료가 청구되므로 1688-8031번의 ARS 전화를 주로 이용한다. ARS의 경우 마이버스에 정류장이나 버스 번호를 등록해 놓으면 등록된 마이버스 번호를 누르는 것만으로 바로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아주 편리하다.

서울지역 운행버스도 서울버스 운행정보 홈페이지(http://bus.seoul.go.kr)에 접속하면 정류장 도착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서울지역은 PDA(http://mobile.bus.go.kr/pda)로도 접속할 수 있어 서울시내에 널려 있는 눈먼 무선인터넷(Wi-fi)나 와이브로(Wibro)를 통해 무료로 쉽게 버스 도착 예정시간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ARS 접속번호 1577-0287로도 음성 안내를 받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왕대리의 경우 집앞에 있는 잠원한신아파트 정류장 식별번호(ID) #22174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그래픽 화면에 361번(서울743037호) 약 7분후 도착, 두번째 361번은 18분후 도착 등 버스 전체의 운행구간별 위치를 실시간으로 그래픽으로 확인할 수 있어 언제 집에서 튀어 나와야 할지를 분초 단위로 컨트롤 할 수 있다(버스 차량번호까지 보여준다).

이제 회사앞 버스정류장에 도착하는 버스의 도착시간을 미리 알 수 있으므로 왕대리가 근무하는 7층 사무실에서 버스정류장까지 걸리는 소요시간만 알면 된다. 버스 도착시각에서 7층사무실-버스정류장까지의 소요시간만 빼면 사무실 출발시각이 나오니까 말이다. 7층사무실에서 버스정류장까지의 소요시간은 약간의 통계적 계산이 필요하다. 왕대리 회사의 '인텔리전트' 한 엘리베이터는 가끔 7층으로 잘 올라오다가 중간에서 별안간 방향을 바꿔 내려가기 일쑤이므로 약 1개월간의 엘리베이터 운행에 대한 표본조사를 통해 표본오차 95퍼센트, 신뢰수준 플러스마이너스 3.1퍼센트포인트로 계산하면 대기시간이 약 1분30초가 된다. 여기에 회사 정문에서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를 왕대리 보폭으로 나누면 약 8분30초, 결국 사무실에서 버스정류장까지의 소요시간은 도합 10분이 된다. 여기에 세이프티 마진(설계여유도) 0.1을 곱하면 최종 소요시간으로 11분이 산출된다.

요즘은 한결 야근이 즐거워졌다. 7층 사무실을 나와서 버스정류장 앞에 도착한후 담배 한대 물면 원하는 버스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바로 발앞에 도착한다.

이것이 원자력발전소 명품설계를 추구하는 우리 엔지니어만이 느낄 수 있는 쾌감이다.

참고로 버스관련 주요 인터넷 사이트도 아낌없이 알려드린다. 전국 시외버스는 http://www.gbus.co.kr, 고속버스는 http://www.kobus.co.kr이다.

NACE Corrosion
-2009를 다녀와서

이철우 / 원)토목건축기술처 차장

Benchmarking & Globalization

이번 NACE Corrosion-2009의 참가목적은 크게 두가지였다. 하나는 그 동안 NACE(National Association of Corrosion Engineers, 국제부식협회)에서 취급하지 않던 원자력산업의 도장분야가 미국의 원자력발전소 건설재개 분위기에 따라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처음으로 개최하는 Nuclear Coatings Inspector Forum에서 한국의 원자력도장 품질 제고 시행사례를 발표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원전도장검사자(Nuclear Coating Inspector) 이외에 ASTM D7108의 요건에 의한 원자력도장전문가(Nuclear Coating Specialist) 등록제도를 채택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를 충족하기 위하여 설립되는 국제 원자력도장전문가 등록위원회의 이사회에 참여하는 것이다.

20년 전 KOPEC에 경력사원으로 입사하여 원전도장 설계업무를 시작하면서 미국 Becthel사에서 원자력도장 설계기술을 전수 받을 때가 생각났다. 교육 당시 기술전수를 하던 Bechtel사의 도장전문가들은 US Carboline사에 근무하는 일흔 살의 도장전문가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은퇴한 상태이다. 이제는 우리가 원자력도장 설계 및 품질관리에 대하여 발표하고 원자력도장전문가의 인증위원회에 기술이사로 참가하는 것에 비추어 우리나라가 원자력발전소의 계속적인 건설로 원전도장 설계기술에 대한 노하우의 축적이 상당한 수준이라는 사실에 감회가 새로웠다.

NACE Corrosion-2009는 미국 애틀랜타 시의 GWCC(Georgia World Congress Center)에서 개최되었다. 매년 6,000명 이상의 참가자가 올해는 세계적인 경기불황의 영향으로 15% 정도 줄었다는 NACE 관계자의 이야기를 들었으나 실제 현장은 다양한 기술위원회 및 토론회가 이루어지는 활발한 분위기였다. 단지 수년 전에 참가했을 때는 전시회에 한국가스공사나 두산중공업 등 한국 기업의 전시관이 있었으나 이번에는 중국의 부식 관련 중소기업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중국의 커 가는 산업동력의 힘을 느끼면서 기술자로서 약간의 긴장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Nuclear Coatings Inspector Forum은 먼저 현재 미국 원전 건설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와 원자력방호도장에 대한 국제적인 동향 및 향후 원전 건설시의 도장설계 방향에 대한 간략한 소개가 있었다. 두 번째로는 미국에서 재개될 원전건설을 준비하기 위하여 한국에서 먼저 시행하고 있는 원전도장검사자 교육과정을 벤치마킹하여 NACE에서 프로그램 개발 중인 원전도장검사자 교육과정에 대한 소개가 있었다. 도착 당일 NACE 직원의 요청으로 미국 원전도장검사자 교육과정에 대한 브리핑과 평가시험 검토에 함께 참여하면서 대략의 교육프로그램 내용을 숙지하고 있었다. 미국의 원전도장검사자 교육과정은 우리의 교육과정보다 원전도장 설계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방사선방호, 원자력 안전, 환경 유해물질 관리 및 원자력 시스템 등 보다 포괄적이고 방대한 양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올 6월 개최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한국 원자력발전소의 도장품질 관리 현황'을 주제로 그동안 국내에서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수행하면서 도장품질 관리를 위하여 우리회사를 비롯하여 여러 기관의 활동을 소개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국제 원자력도장전문가 등록위원회에서는 기술이사로 참여하였다. 이는 미국에서 Three-mile Island 원전사고가 발생하기 이전까지 운영된 NBR(National Board of Registered) Coating Engineer & Coating Specialist의 계속적인 운영을 위한 것으로 위원회의 Title을 BIRNCS(Board of International Registration for Nuclear Coating Specialist)로 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하였다. 또한 향후 원자력도장 전문가의 등급을 4단계로 운영하는 것으로 논의하였다. 미국의 젊은 기술자들이 원전도장 기술인력에 원활히 참여할 수 있도록 NCS-in training을 포함하여 최종적으로 Certified Senior Nuclear Coating Specialist 단계까지 운영하는 방안으로 협의하였다. 같이 기술이사로 참여한 미국 NRC의 도장분야 담당자는 이러한 방안을 2009년 안에 규제요건에 반영하기 위하여 ASTM D-33의 Technical committee에서 올 여름까지 ASTM D7108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근거로 원자력 방사성 방호도장 요건인 Reg. Guide 1.54의 Rev. 2 발행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논의하였다. 각 단계의 원자력도장전문가의 역할 및 업무범위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ASTM에서 구체화될 것이며 향후 Certified Senior Nuclear Coating Specialist의 원자력도장시방서의 승인이나 안전성 관련 도장관리 프로그램, 신뢰성 검증 등에 대한 역할도 논의하였다.

이번 NACE Corrosion-2009 참가는 예년과 같이 신기술 동향 파악 등의 일반적인 학술활동 목적보다는 원전 방사선방호도장의 설계와 관련하여 향후 변경될 규제요건에 대하여 같이 동참하여 사전에 준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행되어 바쁜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활동은 앞으로 국내 도장 관련 기술자의 원자력도장전문가 인증 및 등록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이번 학술활동에서 수집한 정보로서 미국이 중국에 수출중인 AP1000 Project의 품질 제고를 위한 목적으로 개최하는 'China-US Technology Workshop on Application of ASME/ASTM Standards including AP1000 Technology'에서 원전 방사성방호도장의 품질관리 역시 하나의 주제로서 다루어지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향후 중국원전의 도장품질에 대하여 우리의 참여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 보았다.

장수군 하평마을 적과작업

인턴사원과 함께 한 사과 열매 따기

김아람 / 원자로설계사업개발처

원자로설계개발단 임직원은 5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장수군 하평마을 각 농가로 적과작업을 하러 갔다. 하평마을은 2005년부터 '1사 1촌 갖기 운동'의 일환으로 원자로설계개발단과 결연을 맺어온 마을로 과수농사를 주로 하고 있다. 원자로설계개발단에서는 매년 4월에 적화(꽃따기), 5월에 적과(열매따기)작업을 돕기 위해 임직원이 참여하는 봉사활동을 하고, 겨울에는 연탄지원, 소년소녀 가장돕기, 노인회 지원, 연말에는 마을 주민들을 원자로설계개발단에 초청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관계를 지속해 나가 모범적인 '1사 1촌 갖기 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5월 13일 적과작업을 지원하러 노태선 단장과 인턴사원, 멘토를 포함한 40여명의 임직원이 장수군 하평마을로 떠났다. 전날 비가 많이 내려 걱정했는데 오히려 비 덕분에 날씨가 일하기 좋게 선선해져 "오늘 사과 많이 따야겠네!" 하는 말이 절로 나왔다.

지난해 한 번 와봤던 곳이기에 인턴사원에게 능숙한 모습을 보여 줘야지 생각하며 버스에서 내려 작업 조끼와, 모자, 장갑 등을 받아 15명 정도 되는 조에 속해 한 농가로 이동하였다. 400여 그루의 사과나무가 있는 농가로 주인 아주머니가 적과 방법을 설명해 주었다. "가지 끝에 있는 열매 중에서 가장 크고 예쁘게 생긴 것 하나만 고르고 그 외에는 다 잘라주세요. 작년에는 무리 중에서 가운데 열매만 남기면 됐었지만 금년에는 날이 추워서 주변에 있는 열매들이 더 잘 자랐으니 유의해서 작업해 주세요."

작년과 약간 달라진 방법에 다들 헷갈려 하자 같이 나온 농촌계장이 추가설명을 보탰다. "농사일이 언제나 같은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맞는 방법을 적용해줘야 하는 거에요. 일반적으로는 가운데 있는 열매가 가장 잘 자라기 때문에 그걸 남겨놓고 나머지를 잘라야 하지만 올해는 날이 추워서 가운데 열매가 제대로 못 자라서 더 잘 자란 열매를 골라서 작업을 해주면 됩니다." 설명이 끝나고 100그루 정도의 나무가 4줄로 주욱 서있는 나무 양쪽으로 서서 배운 방법대로 작업을 시작했다. 첫 번째 열에서 작업하던 인턴사원 박종무, 이종하 씨가 1시간 만에 이 줄 나무 적과 작업을 다 끝내버릴 것이라고 자신하자 멘토가 한마디 한다. "나도 처음에 왔을 때에는 금방 다 할 줄 알았지. 근데 이거 반절이나 갈 수 있을까." 실제로 작업을 시작하고 시간이 훌쩍 지나갔지만 아직 몇 그루 끝내지 못하자 자신만만하던 초보 농사꾼은 초조한 듯 보였다. 사실 나도 작년에 금방 다 끝내고 쉬어야지 라고 생각하였지만 나무 하나에도 수많은 열매가 잎 속에 숨어있어 하루 종일 하고도 2/3정도밖에 하지 못했던 기억이 있다. 아직 미숙한지라 혹시 열매를 잘못 따서 농가에 피해라도 되지 않을까 하며 조심조심 작업하는 인턴사원 모습이 대견하다. 열심히 일하다 어느새 점심 시간이 되어 모여서 식사를 했다. 농가에 불편을 끼치지 않으려고 식사부터 간식에 이르기까지 모두 회사에서 준비를 했다. 단순히 봉사활동만 가면 되는 것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철저히 준비한 선배들이 대단해 보였다.

점심을 먹고 오후에는 오전의 초보 농사꾼들은 사라지고 모두들 빠른 속도로 열매를 솎아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농사일을 해본다는 이들이 하나라도 더 열매를 따려고 부지런히 손을 놀리는 모습에 나도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주인아주머니에게 우리처럼 일 못하는 사람들이 와서 일하면 괜히 열매 잘못 따서 피해나 주지 않느냐고 여쭈어 보자 아니라며, 일손이 부족한 때 KOPEC분들이 도와줘서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르겠다고 하였다. 게다가 전문적으로 일하는 분보다 KOPEC분들은 워낙 열심히 하려고 해서 더 도움이 된다고 칭찬까지 덧붙이며 김치전과 머루주를 내놓았다. "일 열심히 해서 열매 많이 따야 하는데 이러면 일할 시간이 줄어들겠네요."라고 농담을 하자 아주머니가 "그러면 밥도 안 먹고 일만 해야겠네요?"라고 명쾌한 답변을 하며 기분 좋게 웃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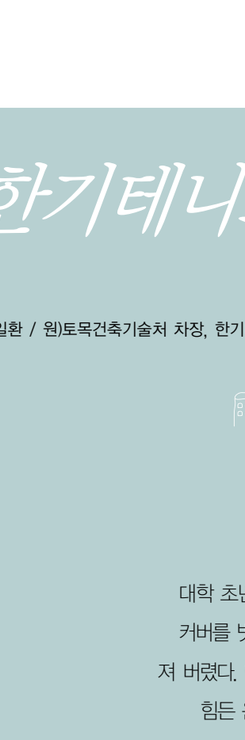
어느덧 집으로 돌아갈 시간, 맡은 줄 끝까지 가지 못해 아쉬움에 모두 열매를 더 따고 싶었지만 아주머니가 빨리 작업 마치라고 모두 내보냈다. 부족한 실력으로 많이 돕지 못한 것이 아쉬운데 아주머니는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정말 고맙다고 인사말을 대신하였다.

사과가 다 익을 추석 무렵 장수읍 홈페이지를 통해 사과를 주문해 먹어야겠다. 집으로 오는 버스는 하루 종일 열심히 일했던 직원들이 모두들 잠에 빠져 조용했다. 오늘 젊고 팔팔한 인턴들과 함께 고생했던 이곳에서 크고 맛있는 사과들이 잔뜩 열리기를 기원해 본다.

- 처음 해보는 농사일이어서 제대로 했는지 나중에 사과 열매가 자라면 알겠지만 열심히 한 만큼 최상품 사과로 영글기 바란다. **이종하**
- 소중한 우리 농산물을 직접 가까이에서 노동으로 체험하면서 우리 농산물에 대한 애정을 느낄 수 있었다. **최상철**
- 작지만 진심을 다한 봉사활동이 장수읍과 과수원농가에 전해졌다고 생각하니 성취감을 느낀다. **허종욱**
- 오히려 폐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했는데 정말로 고마워한다는걸 알고 보람을 느끼면서 열심히 했다. **박종무**
- 앞으로도 내 주변의 이웃을 돌아보며 내가 더 많은 마음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봉사활동에 최선을 다하자는 다짐을 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이은미**
- 고생은 했지만, 처음으로 적과도 해보고, 새참도 먹고, 간만에 걷는 한적한 시골길도 좋았고 여러 가지를 경험할 수 있어서 즐거웠다. **최윤정**
- 바쁜 일정 속에 각자 맡은바 역할을 다하는 모든 KOPEC 임직원의 모습을 보면서 나눔경영과 봉사실천 정신을 배운 소중한 시간이었다. **김태웅**

한기테니스회

문일환 / 원)토목건축기술처 차장, 한기테니스회 총무



대학 초년생 시절 거금을 투자하여 한일 라켓을 구입했다.

커버를 벗기고 처음으로 벽을 향해 볼을 쳤다. 시멘트 바닥에서 친 볼은 학교 담장을 넘어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다. 한참을 찾다가 결국 포기하고 새파란 봄 하늘을 향해 긴 한숨을 내뱉었다. 휴, 테니스는 정말 힘든 운동이구나!

버릇처럼 테니스 교본을 샀고, 벽이라는 선수와 길고도 긴 실전경기 끝에 4학년이 되었을 땐 나름대로 개발한 현란한 자세로 남들이 부러워 할 정도의 벽치기 선수가 되어 있었다. 그렇게 스스로만 만족하는 테니스 고수가 되었던 것이다.

장교로 임관하여 동해시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다. 장교숙소에 인접하여 테니스 코트가 있었고, 장병들도 사귀고 테니스 실력도 본격적으로 늘려 보겠다는 생각으로 처음 샀던 한일 라켓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외국산 신무기를 구입했다. 대학시절 나름 훌륭한 벽치기 고수가 무시무시한 신무기까지 장착했으니 누군들 두려우랴.

어느 따스한 오후 새로 산 무시무시한 라켓에 색깔 맞춰 산 테니스화까지 신고 테니스 코트에 나갔다. 그리고 스스로 익힌 현란한 자세로 테니스 게임을 막 시작했는데 모두가 웃는다. 그러더니 준위(계급의 일종) 한 분이 안쓰러운 표정으로 다가와 말한다. 기본부터 다시 배워야 할 것 같아요. 휴, 4년간 꾸준히 벽과 싸워 스스로 도달한 벽치기 고수가 코트의 고수를 만나 한순간에 하수로 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된 것이다.

테니스 동호인 대부분은 나와 유사한 경험을 하면서 테니스와의 긴 인연을 맺어 왔으리라 생각한다. 그리고 1~2년의 투자로는 도저히 익힐 수 없는 많은 테니스의 기술을 하나씩 자기 것으로 만들어가면서 그 매력에 빠져 들어갔으리라. 테니스는 기초체력, 지구력, 순발력 등이 요구되는 다소 격한 운동이기도 하고, 또한 스트로크, 발리, 서브, 스매시 등의 다양한 기술을 익혀야 하는 다소 어려운 운동이기도 하지만 이렇듯 나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그 매력 속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는 것은 그것을 하나하나 극복해 가면서 느끼는 희열 때문이 아닐까. 그리고 그것이 1875년 Lamn Tennis로부터 체계화된 테니스가 지금까지도 널리 사랑 받는 스포츠로 남아 있는 이유라고 생각한다.

한기테니스회(KTC)는 명실공히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회사 동호회다. 수많은 회사의 선배가 동호회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지금도 회원으로 남아 있으면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그리고 계속해서 새로운 동호회 회원과 가족들이 그 전통을 잇는 자리에 동참하고 있다.

한기테니스회는 매년 춘계대회와 추계대회를 개최하여 회원들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지식경제부장관배와 한전사장배 등의 대외경기에 적극 참여하여 회사의 명예를 높이는데 일조하고 있다. 지난해와 올해 제1,2회 지식경제부장관배 테니스대회에 참가하여 3위 입상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썼으며, 또 다시 새로운 역사를 쓰겠다는 자세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 앞으로의 성과도 좋으리라 우리 회원 모두는 믿고 있다.

4월 11일에는 매년 열리는 한기테니스 춘계대회를 개최하였다. 퇴사하였지만 여전히 우리 동호회에 애정을 보내는 OB, 가족, 회원을 포함하여 36명이 우리회사의 임대코트인 21세기 테니스코트에 모여 마음껏 웃고 즐기며 쌓였던 스트레스를 날렸다. 점심때는 현 회장인 윤기성 차장을 포함한 회장단과 회원이 케이크를 같이 자르면서 우리 동호회의 훌륭한 전통을 영원히 잇고자 다짐도 같이 하였다. 또한 노익장을 과시하며 준우승까지 한 배관기술처 김윤경 부장이 맥주 10,000CC를 제공하여 대회의 기쁨을 나누는 자리가 오후 늦게까지 이어져 보다 즐거운 대회가 되었다.

꽃보다 직장보육시설

회사는 직원복지정책의 하나로 4월 1일부터 본사와 대전 및 4대 현장(고리, 월성, 울진, 영광)에서 직장보육시설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직장보육시설에 18개월된 딸아이를 맡기는 기술기획처 인정 씨는 "회사에서 관리하는 어린이 집은 다른 곳보다 더 신뢰할 수 있어 안심이고, 아이걱정 없이 업무에 집중함으로써 육아문제를 함께 고민해 주는 회사에 대한 애사심이 자발적으로 생겨난다"며 워킹맘을 대표하여 회사의 복지정책에 반가움과 기대감을 나타냈다. 노사협력실 유선용 처장은 "주기적인 운영시설 점검 등 사후관리를 통해, 직원들이 사랑스런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것이며 직장보육시설 설치로 노사간의 화합과 업무 효율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직원들의 직장 및 사회 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직원자녀들의 심신보호 및 건전한 교육을 통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고자 보육 시설별 현장 실태조사 및 직원들의 수요와 선호도 조사를 거쳐 선정된 보육시설을 모든 직원들이 한눈에 둘러볼 수 있도록 카메라에 담아보았다.

대덕특구어린이집

리틀 짐랜드 어린이집

리틀 짐랜드 어린이집

리틀 짐랜드 어린이집

강남 큰빛 어린이집

강남 큰빛 어린이집

푸른하늘 어린이집

가현어린이집

용인 YMCA어린이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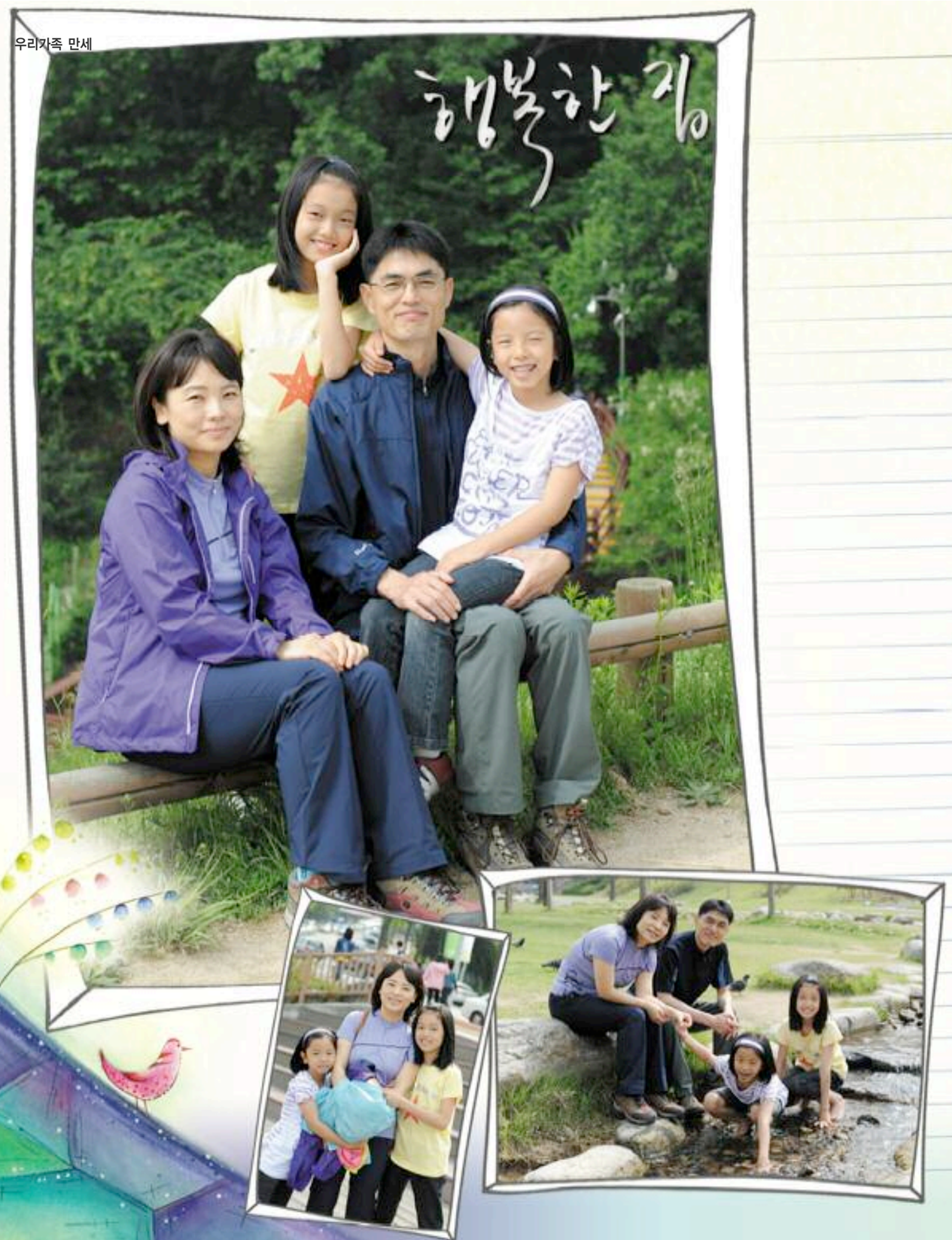
◀ 광덕 어린이집

▼ 메리힐 어린이집

▼ 대덕특구어린이집

▼ 용인 YMCA어린이집

▼ 강남 큰빛 어린이집



두 딸이 보는 우리가족

원자력기술처 이규복 차장 가족

저는 첫째 가영입니다.

우리 가족은 아빠, 엄마, 나, 동생 이렇게 4명이다. 나와 동생은 수원 원천초등학교에 다니고 난 6학년, 동생은 3학년이다. 난 학교에서 방송실 일을 한다. 아침 일찍 7시 30분에 방송실에 가서 멘트 하고 조회 준비하고 여러 가지 학교 행사 소개를 친구 3명과 같이 한다. 난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재미있고 좋다. 나에겐 별명도 아주 많다. 엄마, 아빠는 보름달, 달덩이라고 하는데, 내 친구들은 이갈갈, 이가탄, 이가글, 도깨비, 이멍멍, 킹콩이라고 부른다.

우리 집은 난장판이다. 어떨 땐 고물상처럼 보이기도……. 너무 더러워서 나 혼자서 화내면서 치운다. 엄마는 빨래를 개서 소파위에 그냥 올려놓고 우리보고 알아서 가져다 놓으라고 한다. 우리 집은 청소를 안해서 먼지투성이다. 그래서 난 항상 코가 막힌다. 너무 괴롭다. 이런 이유는 엄마가 문화센터에서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데 돌아오면 힘들기 때문이다.

우리 가족의 규칙은 한달에 한 번씩 광교산을 다니는 것이고, 나의 규칙은 짜증난다는 소리 그만하기, 밥 먹을 때 동생과 싸우지 않기, 소리 지르지 않기 등등 여러 가지이다.

우리 가족은 너무 바쁘다. 난 학교에 가려고 서둘러 집을 나가고, 아빠는 자주 늦잠을 자서 회사버스를 놓친다. 엄마는 설거지도 못하고 그냥 뛰어 나간다. 그리고선 차에서 분명 그냥 혼자 화낸다. 엄마는 손에 든 물건을 찾으러 온 집안을 뒤진다. 내가 "엄마 손에 있네!"라고 말하면 엄마는 크게 웃는다. 정말 웃긴다. 우리 아빠는 항상 화장실에서 씻을 때나, 볼일을 보러 들어갈 때 읽을 것을 들고 가서 소리 내어 읽는다. 또 노래를 부른다. 화장실에 있는데도 정말 목소리가 크게 들린다. 우리는 이렇게 화목하게, 바쁘게, 엉뚱하게, 재미있게 살고 있다.

저는 둘째 서영입니다.

나의 성격과 언니의 성격을 합치면 싸움을 잘 한다. 왜냐하면 언니가 날 싫어할 때가 많아서 그런 것 같다. 우리 집이 지저분하면 짜증이 난다. 집이 지저분하면 언니가 나에게 화내고 언니의 짜증소리가 듣기 싫다.

아빠는 수학을 잘 한다. 아빠랑 같이 수학공부를 하면 재미있다. 아빠가 우리들을 힘들게 가르쳐준다. 하지만 난 빨리 놀고 싶어서 건성으로 들을 때가 많다. 아빠께 죄송한 마음이 든다. 엄마는 음악, 피아노 등을 잘 한다. 엄마와 함께 공부하면 짜증난다. 놀고 싶어서 참지 못하고 '딴짓' 을 한다. 엄마께도 아빠처럼 죄송한 마음이 든다.

언니는 가르쳐 주면 포기하지 않는 성격인 것 같다. (두발)자전거마저 언니가 가르쳐 준 것이다. 아빠와 그전에 내기를 했는데 나는 어린이날 이전에 자전거를 타지 못할 것이라고 했고, 아빠는 어린이날 이전에 탈 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 언니가 끝까지 가르쳐 준 덕분에 어린이날에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되었다.

이가영, 이서영 / 이규복 차장 자녀

'우리가족 만세' 는 화목하게 살아가는 직원 가족을 소개하는 난입니다.
주위에 소개하고 싶은 가족이 있으면 홍보팀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받은 성 룩소르

글, 사진 · 이형준 / 사진가

이집트의 젖줄인 나일 강변에 자리한 룩소르(Luxor)는 유구한 역사를 간직한 고도다. 아랍어로 축복받은 성이라는 지명에 걸맞게 룩소르는 고대 도시문명을 꽃피운 대표 도시다. 위풍당당하면서 세련되고 화려한 문화가 어떤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룩소르, 고대 문명의 발상지이자 신앙의 중심지였던 그곳으로 위대한 흔적을 찾아 떠나본다.

나일 강을 사이에 두고 동안지역과 서안지역으로 나뉘는 룩소르를 대표하는 유적지로는 동안지역의 카르나크 신전과 룩소르 신전 그리고 서안지역의 핫셉슈트 여왕의 장제전과 람세스 3세 장제전, 왕가의 골짜기를 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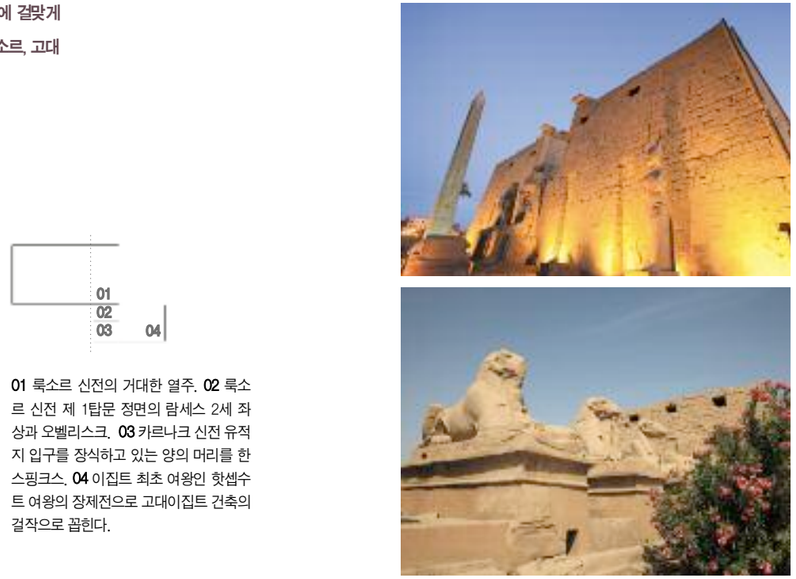
이집트 최대 유적지인 카르나크 신전은 도심 외곽에 있다. 흔히 아몬 대신전이라고도 불리며 고대 종교건축물 가운데 최대 규모로 전사의 신인 몽투를 비롯하여 룩소르 지역의 주신인 아몬, 그리고 무트 여신에게 바쳐진 공간이다. 세 개의 신전으로 이루어진 카르나크 신전의 중심은 룩소르의 주신 아몬 신을 모신 아몬 신전으로 규모는 물론이고 예술성에서도 제일이다.

카르나크 신전은 매우 복잡하고 불규칙적인 공간으로 이루어졌다. 역대 파라오들이 계속해 개축하고 증축한 결과다. 아몬에게 바쳐진 숫양의 머리를 한 스핑크스가 늘어선 진입로부터 제 1안뜰에 세워진 람세스 2세의 거대한 조각상, 높이가 19미터에 달하는 수많은 열주랑, 두 개의 오벨리스크 등으로 이루어진 아몬 신전은 바라보는 것조차 부담스러울 정도로 웅장하다. 이토록 거대한 유적지를 지금으로부터 2300~3600년 전에 건설했다는 사실이 그저 놀라울뿐이다.

여러 신의 조각과 벽화로 가득한 카르나크 신전에서 특히 많은 이들을 불러 모으는 곳은 위풍당당한 위용을 자랑하는 대열주랑이다. 여러 신의 모습과 역대 왕의 이름이 새겨진 열주 몇 개만 보아도 목에 부담이 느껴지는 대열주랑에는 멋진 조각과 더불어 종교적인 의미를 간직한 채색 천장화가 그려져 있다. 높이 20미터가 넘는 천장에 그림을 그려 놓았다는 것 자체는 물론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그 형태와 색채가 뚜렷하게 남아 있다는 것이 신비롭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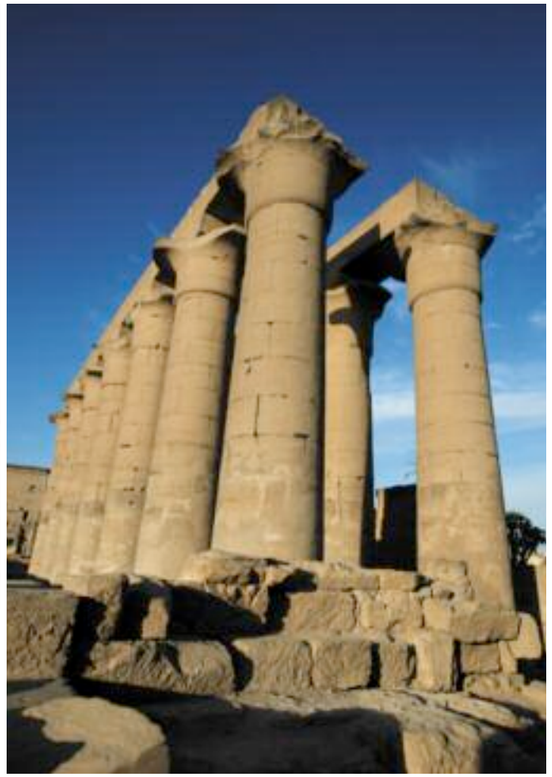
아몬 신전 제 1안뜰에는 아주 이색적인 조각이 하나 있다. 66년이나 집권했던 람세스 2세의 이 조각상 발등에는 특이하게 여인의 조각상이 붙어서있는데 제 1왕비인 네페르타리 상이다. 카르나크 신전에는 아몬 신전 외에도 한 줄로 늘어선 거상을 비롯하여 당시 생활상을 엿볼 수 있게 곡식을 추수하는 장면과 배를 타고 이동하는 모습, 단위를 나타내는 숫자와 각종 상형문자로 가득한 몽투와 무트 신전 등 호기심을 자극하는 공간이 즐비하다.

룩소르 중심 나일 강변에는 룩소르 신전이 있다. 전체 규모는 카르나크 신전에 못 미치나 세련미에서는 결코 뒤지지 않는다. 룩소르 신전은 나일 강이 범람하는 시기에 맞춰 오페트 축제를 거행하기 위해 만든 공간이다. 오페트 축제는 파라오가 스스로의 권위를 세상에 알리며 백성들에게 아몬 신을 대신하여 축복을 내리는 행사로 당시 어떤 의식보다도 중요했다.



01 02 03 04

01 룩소르 신전의 거대한 열주. 02 룩소르 신전 제 1탑문 정면의 람세스 2세 좌상과 오벨리스크. 03 카르나크 신전 유적지 입구를 장식하고 있는 양의 머리를 한 스핑크스. 04 이집트 최초 여왕인 핫셉수트 여왕의 장제전으로 고대이집트 건축의 걸작으로 꼽힌다.



룩소르 신전은 하나하나 따져보면 카르나크 신전과 다르지만 전체 분위기는 흡사하다. 숫양의 머리 대신 사람의 머리를 한 스핑크스를 비롯하여 람세스 2세의 거대한 좌상 2개, 오벨리스크, 웅장한 열주랑, 흥미로운 이야기를 담아 낸 벽면의 조각과 벽화까지. 룩소르 신전에 관한 이야기들은 벽면에 새겨진 조각을 비롯하여 높이가 21미터에 달하는 오벨리스크 등에 수록되어 있다. 고대 이집트 역사를 연구한 학자들이 밝혀낸 대로 룩소르 신전에서는 종교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식을 거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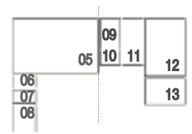
서안지역을 상징하는 이집트 최초의 여왕으로 알려진 핫셉수트 여왕의 장제전은 이집트에 현존하는 고대건축물 가운데 가장 뛰어나다. 왕의 계곡과 왕비의 계곡 사이 깊숙이 위치한 핫셉수트 여왕의 장제전에는 여러 개의 조각상과 다채로운 색상을 이용한 그림이 벽과 천장을 장식하고 있다. 최고의 신 아몬을 중심으로 태양의 신 아톰(혹은 라), 죽음의 신 아누비스를 비롯하여 상형문자 등으로 특히 아침햇살에 모습을 드러낸 3단 테라스와 어우러진 벽화가 신비롭게 다가온다.

서안지역 최대의 유적지는 람세스 3세 장제전이다. 보존상태가 뛰어난 람세스 3세 장제전에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많은 벽화와 거대한 신전이 남아 있다. 한 점이 수십 미터에 달하는 작품부터 손바닥보다 더 작은 채색벽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크기의 벽화는 과거 이집트 파라오들이 영생에 대한 애착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잘 보여준다. 람세스 3세 장제전은 다른 유적지와 달리 열주랑을 덮은 천장과 실내공간이 대부분 원래 상태로 남아 있다.

핫셉수트 여왕의 장제전 인근에는 람세스 2세 신전이 있다. 규모와 예술성에서 람세스 3세 장제전에 못 미치나 화강암과 대리석을 이용한 거대한 조각상은 결코 뒤지지 않는다.

왕의 계곡과 왕비의 계곡은 과거 절대 권력을 행사했던 파라오와 왕비, 왕자들의 영원한 안식처로 현재 몇 곳의 동굴무덤을 제외한 다수는 출입이 제한되어 있다. 왕과 왕비의 계곡에는 아름다운 벽화가 많이 남아 있는데 몇 해 전부터 훼손을 방지할 목적으로 사진촬영은 물론이고 물품의 반입도 금지하고 관람시간도 10분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고대 이집트 유물의 걸작으로 꼽히는 황금으로 만든 투탕카멘의 마스크와 미라가 다시 제자리를 찾아 안치된다는 점이다.

룩소르에는 유적지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전통시장 슈크를 비롯하여, 전통적인 삶을 추구하는 마을과 여유로운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휴양지 등 그 중 가장 흥미로운 장소는 역시 현지인의 생활을 엿볼 수 있는 재래시장이다. 룩소르 재래시장에는 전통 방법으로 제작한 파피루스를 비롯하여 일상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향신료와 식품은 물론이고 오랜 세월 선조들이 살아왔던 것처럼 여유로운 삶을 추구하는 시민들을 만날 수 있다.



05 사람의 얼굴과 사자의 몸을 가진 스핑크스가 늘어선 룩소르 신전 입구. 06 룩소르 시내에서 차와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상점을 운영하는 주민. 07 룩소르 서안 지역에서 양을 돌보고 있는 아낙으로 주로 아낙이 동물을 돌본다. 08 룩소르 신전의 람세스 2세 안뜰과 아멘호테프 3세 안뜰 사이의 열주. 09 권력자인 파라오와 상형문자, 별(천장) 등이 그려진 핫셉수트 여왕의 장제전. 10 양의 얼굴 아래 람세스 3세 조각이 서 있다. 11 아몬 대신전의 람세스 2세와 제1왕비인 네페르타리 상. 12 거의 훼손되지 않은 룩소르 신전의 열주. 13 핫셉수트 여왕의 장제전 앞에 세워진 거대한 조각상.

잊혀진 TV 발명가 필로 판즈워스

김정훈 – 과학동아 기자

Philo T. Farnsworth (1906~1971)

한 세대 전까지만 해도 부의 상징이었던 TV는 오늘날 가장 보편적인 가전기기가 됐다. 집집마다 TV가 한두 대씩 있는 것은 기본이고, 자동차 네비게이션이나 휴대전화에 옵션으로 끼어 있을 정도다. 바꿔 말하면 가장 큰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얘기다. 그런데 현대사회의 필수품이 된 TV는 누가 발명했을까? 사실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증기기관은 와트, 전화기는 벨, 전구는 에디슨 하는 식으로 우리에게 친숙한 발명품마다 발명가가 누구인지 아는데 유독 TV만 그렇지 않다. 왜 그렇게 됐을까?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잊혀진 TV 발명가, 필로 판즈워스를 만나보자.

14살 때 떠오른 영감

필로 판즈워스(Philo T. Farnsworth)는 1906년 미국 유타주 비버시에서 태어났다. 부유한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12살이 될 때까지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오두막집에서 살았다. 환경은 열악했지만 판즈워스의 재능은 어릴 때부터 돋보였다. 낡은 통과 배터리를 사용해 간이 세탁기를 고안하는 등 다양한 발명품을 만들었다. 판즈워스는 독서광이었다. 과학서적과 잡지를 빌려 밤늦게까지 탐독하기를 즐겼다. 그런 가운데 독일의 발명가인 니프코브가 아주 기초적인 TV를 설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구멍이 난 원판을 돌려 움직이는 그림을 얻는 아주 기초적인 기계장치였다. 움직이는 그림이라니! 그때부터 TV는 판즈워스의 마음을 온통 사로잡았다. 14살 때 판즈워스는 말을 끌며 밭을 갈다가 TV를 제작할 아이디어를 생각해 냈다. 좌우로 반복해 움직이며 밭을 갈 듯이 전자를 왕복시키면 영상을 전송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는 진공관 안쪽에 빛에 반응하는 물질을 입히고, 빛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꾸는 장치를 달면 영상을 전기신호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다.

판즈워스의 조력자들

하지만 아이디어가 실체로 구현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지원이 필요한 법. 고등학교 화학 선생님이었던 저스틴 톨만은 판즈워스를 도운 조력자 가운데 한 명이다. 그는 판즈워스의 재능을 높이 사 상급반에서 수업을 듣게 해주고, 판즈워스의 아이디어를 함께 고민했다. 판즈워스는 고등학생이던 1922년, 전자식 TV의 스케치를 그려 톨만에게 보여줬다. (훗날 이 일이 판즈워스를 곤경에서 구한다.) 판즈워스가 대학교에 진학하면서 TV 발명은 잠시 주춤했다.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그가 가족을 돌봐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1926년 결정적인 기회가 찾아왔다. 투자자였던 조지 에버슨과 레즈 고렐을 만나 6000달러라는 거금을 후원받은 것이다. 그 덕에 판즈워스는 로스엔젤리스에 신혼집이자 동시에 연구실을 차리고, 연구에 몰두할 수 있었다. 이후 에버슨은 지인들을 통해 2만5000달러를 추가로 후원하는 등 판즈워스의 재정적인 버팀목이 돼 주었다. 1927년 9월 7일, 드디어 판즈워스는 후원자들이 모인 장소에서 움직이는 영상을 찍는 '영상분해기' (현대의 촬영 카메라)와, 영상을 보여주는 '영상 수신기' (현대의 텔레비전)를 시연하는데 성공한다. 그가 처음 선보인 화면은 달러 기호($), 담배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 하키 게임을 하는 장면이었다. TV는 점점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고, 1930년 판즈워스는 TV와 관련해 2개의 특허를 받았다.

판즈워스의 방해자들

하지만 판즈워스의 TV 발명은 당시 미국의 거대 가전기업인 미국라디오방송공사(Radio Corporation of America, RCA)에게 그리 탐탁지 않은 소식이었다. RCA는 러시아 출신의 기술자인 즈보리킨을 고용한 뒤 몰래 판즈워스에게 보낸다. 즈보리킨은 당시 판즈워스처럼 TV를 연구하던 사람이었으나 기술적인 난관에 부딪힌 상태였다.

즈보리킨은 판즈워스에게 자신이 단지 TV에 관심있는 기술자라고만 소개했다. 판즈워스는 의심 없이 즈보리킨에게 TV 연구를 둘러볼 수 있도록 허락했다. RCA로 돌아온 즈보리킨은 판즈워스의 영상 분해기를 모방해 자신의 TV 연구를 보완했고, RCA는 1932년 전자식 TV를 시연하기에 이른다. TV에 대한 특허는 판즈워스에게 있었지만 당시 특허권은 허술한 면이 많았다. 즈보리킨은 진공관을 2개 사용해 판즈워스의 특허권을 교묘히 피했다. RCA의 비열한 행동은 1934년 극에 달한다. 즈보리킨이 판즈워스보다 앞서 1923년 전자식 TV를 개발했다며 TV 특허 우선권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대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개인이 승리하기란 어려운 법. 하지만 이때 판즈워스의 고등학교 은사였던 톨만이 제자가 1922년 그린 스케치를 들고 법정에 들어선다. 법원은 판즈워스의 손을 들어줬다.

기회를 잃어버린 판즈워스

하지만 RCA는 계속되는 항소로 재판을 질질 끌고 갔다. 1934년 시작된 소송은 5년이 지난 1939년에야 판즈워스의 승리로 끝났다. 하지만 판즈워스는 계속된 소송에 시달리느라 가장 중요한 기회의 시기를 잃어버리고 만다. 함께 방송을 만들기로 했던 필코라디오는 RCA의 협박에 못 이겨 중도에 계약을 파기했고, 판즈워스의 건강은 극도로 나빠졌다. 반면 RCA는 소송으로 판즈워스를 묶어놓은 뒤 기술을 보완하며 방송 준비를 차곡차곡 진행했다. 최종 재판이 있기 6개월 전인 1939년 4월, 뉴욕 세계 박람회에 전자식 TV를 대대적으로 홍보해 마치 TV의 개발자가 자신들인 것처럼 선전했다. RCA는 재판에서 패한 뒤 어쩔 수 없이 판즈워스가 특허권자임을 인정했지만 이미 대세는 급격히 기운 상태였다.

천신만고 끝에 재판에 승리한 판즈워스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제2차 세계대전이었다. 방송국은 문을 닫았고, TV를 생산해야 할 공장은 군수 공장이 됐다. 그리고 세계대전이 끝난 지 2년 만인 1947년 판즈워스의 특허권은 종료됐다. 안타깝게도 판즈워스의 특허권이 종료된 시점부터 TV 시장은 급속히 성장하기 시작했다. RCA가 '즈보리킨이 TV의 아버지'라고 대대적으로 선전하면서 판즈워스는 서서히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졌다. (RCA도 끝이 좋지는 않았다. 기술 개발에 소홀한 결과, 일본 가전기업에 밀려 결국 1986년 문을 닫았다. 현재 RCA는 상표로만 존재하고 있다.)

세 가지 색을 전자로 실어 보낸다는 판즈워스의 기본 원리는 오늘날도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다. 힘의 논리에 밀려 마땅히 취해야할 대가를 얻지 못한 것도 부족해 최초 발명자의 이름까지 빼앗겼다는 사실은 너무나 안타깝다. 그의 이름을 기억해 주자. 필로 판즈워스, TV의 최초 발명가다.

초여름 달아난 입맛을 불들다

– 자리물회, 도리뱅뱅이, 꽃게장, 죽순회

글 · 사진 / 최갑수, 여행작가

여름 초입 6월, 무더위에 육신도 지치고 입맛도 떨어질 때다. 땀을 흠뻑 흘릴 수 있는 보양식과 달아날 입맛을 되살려 주는 향긋한 음식이 슬슬 생각난다. 제주 자리물회, 옥천 도리뱅뱅이, 군산 꽃게장, 담양 죽순회를 이 여름 추천한다.

여름철 대표 바다음식은 자리물회다. 따뜻한 물을 좋아하는 자리돔은 난류의 영향을 받는 제주도와 남해안의 섬, 울릉도 등지에 무리지어 생활한다. 자신이 태어난 곳에서 멀리 떠나지 않고 한 자리에서 일생을 보내는데, '같은 자리를 돈다' 해서 '자리돔'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도 하고, 크기가 붕어 크기로 자잘하다고 해서 이름 지어졌다고도 한다. 자리돔은 보리 이삭이 패는 5월부터 8월까지가 제철. 산란기로 고소하고 담백한 맛이 더하다. 이 무렵이면 자리돔을 잡으려는 배들로 제주도 연안이 북적인다. 푸른빛이 감도는 은색 배를 내밀고 파닥 파닥 튀어 오르는 자리돔은 눈부시기까지 하다. 자리돔을 재료로 한 음식으로는 자리물회, 자리강회, 자리구이, 자리무침, 자리젓 등이 있다. 이 가운데 단연 최고로 치는 것이 자리물회다. 자리돔을 뼈째 잘게 썬 후 식초, 참깨, 마늘 등을 넣고 적당히 물을 부어 만든다. 비린내가 나지 않는데다 시원하고 구수해서 제주의 여름 식단에 빠지지 않는다.

자리물회가 시원한 맛을 선사한다면 충북 옥천 도리뱅뱅이와 생선국수는 매콤한 맛으로 땀을 흠뻑 쏟게 만든다. 충북 옥천은 고즈넉한 풍경이 마치 강원도 어느 심심산골에라도 온 것만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금강 상류지역에 위치한 옥천은 오염을 모르는 청정지역이다. 여름이면 반딧불이가 꼬마전구처럼 반짝거리며 날아다닌다. 물이 맑으니 고기도 많다. 피라미, 쏘가리, 빠가사리, 메기가 지천. 이들 물고기를 재료로 만든 도리뱅뱅이와 생선국수, 민물 매운탕이 별미다. 도리뱅뱅이란 피라미를 잡아서 튀겨 양념을 발라 먹는 요리다. 금산, 옥천, 영동, 무주 등 금강 유역의 마을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 도리뱅뱅이란 재미있는 애칭은 까맣고 둥근 프라이팬을 따라 둥글게 자리 잡은 피라미를 보고 있으면 고개가 끄덕여진다. 이곳 옛사람들은 천렵을 해 피라미를 잡아 매운탕을 끓이고 도리뱅뱅이를 해 먹은 추억을 누구나 가지고 있다.

도리뱅뱅이를 만드는 방법은 간단하다. 먼저 꾸덕꾸덕하게 마른 피라미를 묽은 튀김옷 반죽에 담근다. 그리고 그 위에 마른가루를 덧발라 기름을 넉넉하게 두른 후라이팬에 튀겨낸다. 식용유의 온도는 160℃ 정도가 알맞다. 피라미가 어느 정도 튀겨졌을 때 갖은 양념을 한 고추장을 바르고 다시 한 번 센 불에 재빨리 튀긴다. 이렇게 하면 튀김옷은 더욱 파삭파삭해진다. 튀긴 피라미 위에는 상추, 깻잎, 마늘 썬 것을 얹으면 된다. 새빨간 양념옷을 입고 노릇하게 튀겨진 도리뱅뱅이는 보기에도 군침이 흐른다. 비린내 없이 고소하다. 바삭바삭 씹히는 맛도 일품이다. 피라미 자체가 워낙 담백한 맛을 띠는 생선인데 기름에 튀겨내면 멸치처럼 고소한 맛이 더한다. 피라미는 민물생선이지만 완전히 익혔기 때문에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 도리뱅뱅이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이 생선국수다. 쏘가리, 빠가사리, 메기 등 갓 잡아 올린 신선한 민물고기를 두 시간쯤 통째로 삶는다. 그러면 진하고 걸쭉한 육수가 우러난다. 여기에 고춧가루, 고추장, 생강, 후추, 된장, 들깨가루, 부추, 청양고추, 깻잎 등을 넣고 얼큰하게 다시 끓인다. 한소끔 끓인 후 국수를 넣고 다시 한 번 끓이는데 시원하면서도 칼칼한 맛이 일품이다. 한 그릇 먹으면 속이 따뜻해지고 온몸에 땀이 쫙 흐르는 것이 보약을 먹은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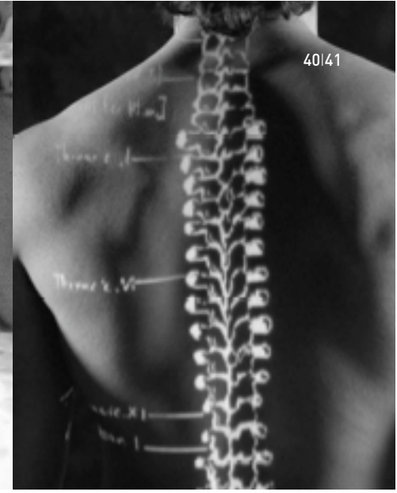
군산 꽃게장 역시 여름 별미다. 한반도 최대의 곡창지대인 김제 · 만경 평야와 서해바다 황금어장이 만나는 군산항은 예로부터 맛의 고장으로 이름난 곳. 꽃게장은 해망동 횟집단지의 생선회와 함께 군산을 대표하는 별미다. 서해바다에서 갓 잡아 올린 싱싱한 꽃게와 전라도 특유의 솜씨가 어우러진 군산 꽃게장은 일찍이 전국적으로 명성을 얻었다. 6월은 물 오른 꽃게 맛을 즐길 수 있는 때. 산란기인 이맘때 잡히는 꽃게는 살이 통통하게 오르고 등딱지에 누런 알이 가득 차 있다. 싱싱한 암꽃게로 담근 간장게장은 생각만으로도 입 안에 침을 가득 고이게 한다. 서해에서 잡은 싱싱한 꽃게가 장맛과 어울려 속속들이 박혀있는 국물까지 빨아들일 때면 부서진 껍데기조차 버리기 싫어진다. 군산 지역에서 잡히는 꽃게는 영양염료가 풍부하고, 계절별 기온차가 큰 환경에서 자라 육질이 쫄깃하고 깊은 맛이 있다. 여기에 타 지역과 구별되는 '삼벌장' 조리법이 더해졌다. 파와 마늘, 생강을 넣어 끓인 간장에 꽃게를 넣어 양념이 푹 배게 한다. 양념이 속살까지 배면 간장을 따라내 다시 끓이고 꽃게 담기를 세 차례 반복한다. 이 과정에서 감초와 당귀, 대추 등 한약재가 더해진다. 그러면 짜지도 비리지도 않고 달짝지근하면서 은은하게 향이 도는 군산 특유의 꽃게장이 만들어진다. 달짝지근한 간장 양념과 노란 알로 가득찬 게딱지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밥을 비벼먹으면 밥그릇은 금방 바닥을 드러낸다. 여성이나 아이들도 밥 한 공기를 쉽게 비운다고 해서 '밥도둑'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게 요리는 '밥도둑'만은 아니다. 게의 단백질에는 로이신, 아르기닌 등 필수 아미노산이 많이 들어 있어서 성장기의 어린이에게 좋으며 소화가 잘 돼 노약자에게도 좋은 식품이다. 특히 성인병 예방과 비만, 간이나 고혈압 환자에 특효로 알려진 게에는 간장과 심장을 강화시키는 타우린이 많이 들어 있다. 많은 경우엔 450mg까지 들어 있어서 성인병 예방에 유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숲에 서걱이는 바람 소리 가득한 담양은 여행지로서 최적의 장소다. 죽녹원 등의 커다란 대숲과 소쇄원, 명옥헌 같은 아름다운 정원, 정자가 즐비하다. 이국적인 메타세콰이어 길과 산에 파묻힌 아름다운 금성산성도 매력적이다. 담양은 풍부한 볼거리와 함께 뛰어난 맛의 고장이다. '음식 하면 역시나' 하는 남도 땅인데다 풍요로운 들판에, 인근에 광주라는 거대한 소비 도시를 끼고 있어 유달리 음식 문화가 발달했다. 담양의 별미는 죽순회. 봄철 대나무가 흙속에서 순으로 돋아날 때, 30~40cm 크기로 자란 죽순을 캐어다 삶아 하루쯤 물에 담근다. 이렇게 하면 아린 맛이 없어지는데 여기에 우렁, 오리, 풋고추, 미나리, 양파, 당근 등을 섞어 초고추장과 물엿을 넣고 무쳐낸다. 심심한 듯 아린 죽순의 맛과 입 속에서 사각거리는 질감이 일품이다. 260여 년 전 평양 감사가 담양에서 죽순회를 맛보고 간 후 그 맛을 잊을 수 없어 하인들에게 죽순을 구해오도록 명했는데 한겨울이라 대바구니를 삶아 상에 올렸다는 얘기가 전해질 정도다. 죽순과 돼지고기에 표고버섯 · 양파 · 마늘 · 고추 등의 양념을 섞어 쪄내는 죽순찜도 맛볼 만하다.

거북목 증후군

즐 거 운 인 생 활 기 찬 생 활 건 강 한 노 후 준 비 를 위 한 지 점 서

임민선 / 메디피아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사무실을 둘러보면 거북처럼 목을 앞으로 쭉 빼서 서류나 컴퓨터 모니터를 쳐다보는 사람이 많다. 이런 사람은 대부분 엉덩이를 뒤로 빼고 팔을 책상에 기대고 상체를 숙인 자세로 앉아 있다. 이들은 서 있을 때나 걸을 때도 마치 큰 죄라도 지은 것처럼 고개를 떨구고 어깨를 움츠린 자세를 취한다. 가끔씩 등이 구부정한 자세로 걷는 사람들도 주위에서 많이 볼 수 있다. 컴퓨터나 사무 작업시 목을 구부려 몸을 숙인 채 작업하던 자세가 습관이 된 탓이다. 이렇게 거북이 목처럼 앞으로 구부러진 자세를 ' 거북목' (Turtle neck)이라고 한다. 거북목 자세는 목근육과 등근육을 피곤하게 해 척추를 반듯하게 지지하는 근력을 저하시킨다. 이러한 증상을 가리켜 거북목증후군이라고 한다. 거북목증후군을 초래하는 가장 큰 원인은 잘못된 자세다. 사무나 학습시 모니터나 노트북, 책 등을 눈높이보다 낮게 하거나 거리가 멀어 목을 앞으로 숙이는 등의 나쁜 자세를 오랫동안 계속할 때 나타난다.

목을 내밀 때 나타나는 증상

거북처럼 목을 앞으로 내민 자세를 오랫동안 유지하면 목뼈를 지탱하는 목 뒷부분의 근육과 인대가 과도한 힘을 받아 팽팽하게 당겨지게 되고, 그 상태가 만성화되면 근육과 인대가 비정상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그로 인하여 평소에 어깨가 뻐근하고 통증을 느끼기 시작하며, 허리가 아프거나 등 부위에 통증을 느끼기도 한다. 또한 목과 어깨 부위의 근육이 당겨서 딱딱해지고, 허리를 뒤로 젖히기 힘들어지며, 머리가 울리거나 눈이 피로하여 평소에 피로를 자주 느끼고 전체적으로 몸이 무겁다는 느낌의 증상을 보인다.

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황지혜 교수는 "목뼈를 지탱하는 근육과 인대는 머리 뒷부분과 어깨까지 하나로 연결돼 있어 두통과 견비통(어깨와 팔의 통증)까지 나타난다"고 말했다.

분당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 백남종 교수는 "이른바 ' 거북목증후군' 은 진단기준과 증상 등이 명확히 정의되지 않은 비의학적 용어"라며 "컴퓨터 사용자에게 빈발한다는 점에서 VDT 증후군과 비슷하며, 통증의 양상은 근육이 뭉쳐서 생기는 근막통증증후군과 유사하다"고 말했다.

백교수는 "불분명한 통증, 전신 피로, 집중력 감퇴 등의 증상이 나타나나 처음엔 증상이 애매모호해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많다"며 "만성적으로 목이 뻣뻣하게 느껴지거나, 어깨 근육이 당기듯 아프거나, 머리 뒤쪽에 두통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자세를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거북처럼 목을 내밀고 생활하면 작은 충격에도 목 디스크가 생길 수 있으며, 그 아래 흉추와 요추도 비정상적으로 변형돼 척추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백교수는 경고했다.

'거북목증후군' 의 진단과 처방

자신이 ' 거북목' 인지 알아보는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차렷 자세로 선 뒤 귀의 중간부터 아래로 가상의 선을 그었을 때, 그 선이 어깨 중간을 통과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스스로 측정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동료에게 봐 달라고 하면 된다. 그 선이 중간보다 앞으로 2.5cm 정도 나와 있으면 이미 거북목으로 변해간다는 신호며, 5cm 이상 나와 있으면 이미 거북목이 심각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거북목으로 인한 통증은 자세를 교정하고, 스트레칭으로 목 뒤쪽 근육과 인대의 비정상적 긴장 상태를 풀어주면 어느 정도 해소된다. 목이나 어깨의 근육이 뭉쳐서 단단한 띠처럼 느껴질 경우엔 핫팩을 하거나 마사지를 해서 뭉친 근육을 풀어줘야 한다. 또 목이나 어깨의 특정 부위를 눌렀을 때 심한 통증이 전기처럼 뻗치는 경우엔 이미 근막통증증후군으로 발전했을 가능성이 크므로, 적극적인 통증 치료를 받아야 한다.

거북목증후군의 치료는 증상이 가벼울 경우 자세교정과 컴퓨터, 사무작업의 시간을 짧게 해주면서 자주 일어나서 걸어주는 것만으로 효과를 볼 수 있다. 정면을 보며 걷는 것이 자연스러운 교정역할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통증이 심하면서 만성적인 경우에는 병원에서 방사선 검사를 시행하고 전문의와 상담을 하며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를 처방받아야 한다.

거북목 증후군은 평소습관화 되어있는 나쁜 습관의 결과이므로 근본원인은 자신에게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치료의 어려움은 증후군을 겪고 있는 환자자신이 좋은 습관, 절제된 작업, 꾸준한 운동 등을 통해 스스로 고쳐나가야 한다.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습관이 처음에는 적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이 습관을 기르고 위에서 언급한 내용을 실천하는 것은 만성적인 목의 통증과 같은 문제를 예방하는데 매우 유용할 수 있다. 책상에 앉을 때는 엉덩이를 의자 뒤쪽에 바짝 밀착시켜야 하며, 허리와 가슴을 쭉 펴고 고개를 꼿꼿이 세워야 한다. 책상이나 식탁에 팔을 대고 상체를 숙이는 자세는 피해야 한다.

서 있거나 걸을 때도 마찬가지다. 어깨를 움츠리면 머리가 앞으로 나오게 되므로 좀 어색하다 싶을 정도로 당당하게 가슴을 내밀 필요가 있으며 상체가 자연스레 숙여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컴퓨터 작업을 할 때는 두꺼운 책 등을 받쳐 모니터를 눈과 수평이 되는 높이까지 올리는 게 좋다. 평소 아무리 좋은 자세도 20분 이상 유지하면 척추와 주변 조직에 무리를 주므로 최소 20분에 한 번씩 자세를 바꿔줘야 하며 수시로 기지개를 켜고, 1시간에 한 번은 일어나서 목 운동을 해야 한다.

거북목 증후군의 예방법

- 평소 책상이나 컴퓨터 작업을 할 때 올바른 자세를 취한다.
- 모니터의 높이를 눈높이까지 올린다. 이러면 보기 편할 뿐 아니라 목에 가해지는 압력도 줄일 수 있다.
- 엉덩이가 의자 뒷부분에 닿을 수 있도록 하고 구부려 앉지 않는다.
- 높은 베개도 거북목을 악화시키는 원인이므로 낮은 베개를 사용한다.

Inside Outside

동호회동정

본사 테니스회 제2회 지식경제부장관배 테니스대회 3위 입상

본사 한기테니스회(KTC)는 지식경제부가 주최한 제2회 지식경제부장관배 테니스대회에 5월 9일 참가하여 지난해에 이어 연속 3위에 입상하였다. 지식경제부 산하 28개 유관기관의 30개 팀이 1.2.3부로 나뉘어 3복식 단체전으로 경기를 치렀으며, 우리회사는 10개 기관과 2부에 속하여 시합을 하였다. 이번 대회는 50세 이상 남자선수 경력자와 40세 이상 여자선수 경력자의 참가가 허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회사를 대표하여 최종 선발된 6명이 복식조를 이루어 실력을 겨루는 단체전이었기에 어느 대회보다 박진감이 넘쳤다. KTC는 조1위라는 우수한 성적으로 예선을 통과하고 8강도 쉽게 승리하여 우승까지도 예상하였으나, 대회 우승팀을 준결승전에서 만나 아쉽게 패하였다.

KTC 제2회 지식경제부장관배 테니스대회 3위 입상

고적답사회 부안 내소사 등 답사

고적답사회는 5월 9일 회원 및 가족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 부안군의 내소사 및 부안 영상테마파크, 채석강을 답사하였다. 고적답사회는 매년 한번씩 국내에 소재하는 고적지 방문을 통하여 유래 및 역사를 알아가며 상호 화합을 다지고 있다.

고적답사회 부안 내소사 등 답사

본사 조우회 시조회 개최

한기 조우회는 4월 25일 용인 노곡지에서 시조회를 개최하였다. 바람이 많이 불어 날씨가 찼지만 모처럼 솜씨를 겨루며 올해도 활기찬 동호회 활동을 기원하였다. 이날은 이태규 회원이 가장 큰 붕어를 낚은 가운데 회원들의 기량이 모두 엇비슷하게 나타났다.

본사 조우회 시조회 개최

인사동정

차장(책임급)

이동훈 · 노사협력실

정환태 · 배관기술처

김상은 · 원)전기계측기술처

사우애경사

결혼

정인철 대리

김현우 대리

▶ 기계배관기술처 정인철 대리
: 5월 9일 웨딩의 전당 캐슬

▶ 원)전기계측기술처 임태욱 부장 장남
: 5월 9일 월드글로리아센터

▶ 원)전기계측기술처 박형섭 차장 딸
: 5월 9일 유쉘컨벤션홀

▶ 플)토목건축기술처 김현우 대리
: 5월 10일 에이티센터

▶ 배관기술처 오창균
: 5월 16일 현대41컨벤션웨딩

▶ 행정재무처 이한우 대리
: 5월 16일 한국전력공사 대강당

▶ 원)전기계측기술처 유이봉 차장 장녀
: 5월 16일 수원 엘리제웨딩홀

▶ 환경기술실 장필우
: 5월 23일 부산 재송제일교회

▶ 원)사업책임자실 배환철 처장 장녀
: 5월 30일 강남구 논현동 뉴힐탑호텔

이한우 대리

오창균 사원

부음

▶ 플)전기계측기술처 권호기 차장 부친
: 4월 27일 영주시 추모의집

▶ 기계배관기술처 김철 차장 장모
: 5월 3일 무안군 무안병원

▶ 플)토목건축기술처 김재원 부장 장인
: 5월 9일 삼성서울병원

▶ 플)전기계측기술처 박우현 차장 부친
: 5월 9일 경주시 안강중앙병원

▶ 기계배관기술처 이주명 차장 부친
: 5월 14일 상계동 백병원

▶ 플)전기계측기술처 이예재 차장 모친
: 5월 15일 분당 서울대병원

▶ 플)토목건축기술처 최호철 차장 모친
: 5월 19일 춘천장례식장

▶ 원)전기계측기술처 최성엽 차장 장인
: 5월 24일 속초시 아산상조장례식장

▶ 플)토목건축기술처 하정수 차장 모친
: 5월 25일 하월곡동 뉴타운장례식장

▶ 배관기술처 김병걸 차장 장모
: 5월 29일 군산시 중앙장례식장

원자로설계개발단 농촌결연마을 적과작업 실시

참사랑봉사단

원자로설계개발단 농촌결연마을 적과작업 실시

원자로설계개발단 참사랑봉사단은 5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농촌결연마을인 전북 장수군 장수읍 개정리 하평마을에서 적과작업을 도왔다. 4월 사과나무 적화 작업에 이어 연인원 131명이 과수농가 10가구 13,000여 주의 사과나무 열매를 솎았다. 하평마을 대부분 농가가 과수원을 하고 있어 농번기에는 일손이 부족하여 적과시기를 놓치기 일쑤인데 참사랑봉사단이 적기에 일손을 보태 농가에 크게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13일 봉사활동에는 청년인턴과 멘토, 부서장 및 단장이 함께 참여하여 농촌 일손도 돕는 한편 대화의 장을 통해 인생 선배의 경험을 나누는 뜻 깊은 자리도 마련하였다. 이번 봉사활동은 KBS-1 TV에서 오전 7시에 방송되는 뉴스광장의 5월 14일 '지역이 경쟁력'이라는 지역 프로그램에 방송되고 전주일보 등 일간지에 크게 보도되어 회사를 홍보하는 계기도 되었다. 원자로설계개발단은 2005년부터 장수읍 개정리와 결연을 맺고 농번기에 주로 사과나무 꽃 적화와 열매를 솎아주는 적과작업을 돕고 있으며, 소년 · 소년가장 지원, 독거노인 지원 등의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플랜트본부 온누리요양원과 연꽃마을 방문

플랜트본부 참사랑봉사단은 5월 13일 온누리요양원과 연꽃마을을 방문하여 정기후원금을 전달하고 노력봉사활동을 하였다. 실내외 청소에서 시작하여 물품이동, 수로정리, 시설주

Inside Outside

변 제초작업과 목욕봉사 등을 하며 힘든 하루였지만 보람있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5월 14일에는 온누리요양센터 증축 개원식에 참석하여 행사를 지원하고 그동안 봉사활동에 대한 감사패를 받았다.

요한의 집 아동과 봄소풍 다녀와

플랜트본부 참사랑봉사단은 5월 25일 과천 대공원에서 요한의 집 아동들의 봄소풍 행사를 함께하며 따뜻한 시간을 보냈다. 이번 봉사에 참여한 플랜트본부 기계배관 직원들은 몸이 불편한 아이들의 동식물원 관람 및 돌고래쇼 관람 등을 함께 하고 식사를 돕는 등 정성스러운 봉사활동을 펼쳤다. 더운 날씨였지만 아이들의 모처럼 만의 나들이를 함께 하며 특별한 정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기에 더욱 보람있고 의미있는 하루였다.

요한의 집 아동과 봄소풍 다녀와

동우회동정

춘계명승지 탐방

동우회는 5월 12일 안면도 국제 꽃박람회장으로 춘계명승지 탐방을 다녀왔다. 간월암을 탐방한 뒤 꽃의 향연장인 꽃박람회를 감상하고 천리포수목원을 관람하였다. 이어 저녁식사를 함께 하며 동우회의 발전을 기원하는 것으로 탐방행사를 마무리하였다.

산동우회 수락산 올라

산동우회는 수락산으로 4월 정기산행을 다녀왔다. 의정부 회룡역에서 중랑천을 건너 수락산 능선을 따라 북에서 남으로 내려가는 코스로, 전날 밤 비가 내려 바위가 미끄럽지 않나 걱정했는데 다행히도 바위가 말라 홈통바위를 무사히 오를 수 있었다. 산에는 진달래가 이제 꽃잎을 떨어뜨리고 철쭉이 막 피어나기 시작하여 봄의 정취가 한층 더하였다.

부음

▸ 이문은 배우자 : 4월 9일 일산병원

고 이길준 차장 영결식, 사우장으로 치러

고 이길준 차장의 영결식이 5월 27일 서울 강남성모병원에서 유족 및 임직원 약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우장으로 치러졌다. 고인은 1965년생으로 한양대학교 원자력공학과를 졸업하고 1990년 동 대학 동 과에서 석사 학위를 받은 후 1992년 2월 우리회사에 입사하였다. 입사 이후 원자력기술처 내 방사선방호그룹에 근무하면서 영광 3,4호기, 울진 3,4호기 및 영광 5,6호기 종합설계용역과 차세대원전, 신고리 1,2호기 및 신월성 1,2호기 종합설계용역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용역에 참여하여, 탁월한 지식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원자력발전소 방사선방호 설계, ALARA 검토 및 기술개발 등의 다양한 업무를 훌륭히 수행하여 우리나라 원자력산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요재지이 1~6

포송령 지음 / 김혜경 옮김 / 민음사

1990년대 나에게 중국을 떠올리는 인물은 중국 사상사 최대의 이단아라는 이탁오와 귀화(鬼火)처럼 요기를 발휘했다는 시인 이하(李賀), 평생 괴이한 이야기를 수집한 포송령이었다. 그 무렵 관련서적도 희귀하였고 미처 번역도 되지 않아 편린 같은 정보에만 의존해야 했다. 지금은 평전도 나오고 좋은 번역이 쏟아져 나와 격세지감을 느낀다.

〈요재지이〉는 '요재라는 이가 기록한 기이한 이야기 모음집'이란 뜻이다. 왕조영과 장국영이 주연한 영화 〈천녀유혼〉도 〈요재지이〉에 실린 〈섭소천〉 편을 각색한 것이다. 일본 애니메이션 감독 미야자키 하야오의 작품들도 〈요재지이〉를 참고한 듯한 인상을 받는다.

〈요재지이〉에는 온갖 귀신과 여우, 정령, 괴물, 신선이 출현하여 무한한 상상의 세계를 펼쳐 보인다. 실로 〈아라비안 나이트 : 천일야화〉의 동양판이며 〈전설의 고향〉 드라마나 최근의 판타지 소설의 원류라 여겨도 좋겠다. 현실과 환상의 경계를 넘나들기에 우리의 민담, 전설, 설화와도 정서적으로 닿아있다.

신비한 이야기에 몰입한 포송령도 탁오와 이하와 비슷한 운명에 괴로워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의 흥취는 갈수록 용솟음쳐 누군가 나를 두고 미쳤다고 말해도 굳이 변명하지 않겠다. 마음 기댈 곳을 찾았는데 남들에게 어리석다 일컬어진들 무슨 거리낌이 있으려오? 예를 숭상하는 군자들은 나를 조소할지도 모를 일이다. 설사 〈요재지이〉가 황당함의 극치를 달린다 하더라도 한 군데나마 취할 곳이 있다면 일괄하여 없애버려서는 안될 것이다. 어떤 이에게는 인과연기에 대한 깨달음을, 육도는 끝 간 데 없이 멀지만 결국은 정해진 운명임이 어찌 아무런 근거 없는 허황된 말이라 하겠는가."

차갑고 쓸쓸한 서재에서 붓끝을 놀리던 그는 난간에 기대어 달빛을 받으며 읊조린다. "진정 나를 알아줄 이는 꿈속에서나 만날 수 있는 귀신뿐이런가?" 나이 스물에 마음은 이미 늙어 있었고 제 머리가 온통 희어진 꿈을 꾸고 꿈에서도 울었다는 이하도, 또한 탁오도 글을 쓰면 사람들이 귀에 거슬려 반드시 자신을 죽이려 할 것이라 말하며 그의 〈태워버려야 할 책〉 서문에서 "나를 이해하는 사람이 혹시 한 명이라도 있을지 모르겠다. 나는 있으리라 기대한다. 그러므로 간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대를 초월하여 현대로 접어들수록 그들의 진가는 재조명 받고 있다.

특히 〈요재지이〉는 옛 남녀간의 애정, 에로티시즘을 심리도 섬세하고 적나라하게 묘사하여 요즘 읽어도 신선한 느낌을 불러오며 재미난다. 밤마다 꿈같은 이야기 한 편 읽으며 잠이 들어도 좋으리라. 정말 꿈처럼 밑도 끝도 없이 펼쳐진다.

이태윤 / 원자로설계사업개발처 차장

숨은그림 찾기

구성 : 임종우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아마추어로서는 꽤 솜씨 있는 바이올린 주자였다. 프린스턴 대학교 재직시에는 여러 해 동안 친구 몇 사람하고 조그만 앙상블을 조직해서 연주를 하기도 했다.

어느 날 저녁, 하이든의 4중주곡을 연주하다가 제2악장을 시작하는데 네 번씩이나 함께 맞추지 못하자 첼로주자가 어이가 없다는 듯이 아인슈타인을 바라보더니 이렇게 말했다.

"알버트, 자네 참 딱하군. 하나 둘도 셀 줄 모르나?"

위의 그림 중에서 숨은그림(낫, 국자, 삼각자, 옷걸이, 아기우유병, 고추, 여자고무신)을 찾아 독자엽서에 표시해 매월 말일까지 보내 주세요.
추첨을 통해 당첨된 분께는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5월호 당첨자 및 정답

숨은 그림(스푼, 고추, 하이힐, 망치, 거위, 만년필촉, 장화)

우혜민 / 기계기술처

조윤기 / 원)토목건축기술처 대리

이주희 / 원자력사업개발처

오정민/ 플)토목건축기술처

편집자에게

지난호는 무엇보다 'Teamwork-공정관리스터디그룹' 이 인상 깊었습니다. 같은 부서면서도 잘 모르고 어색했던 분들을 소개하는 내용이 실려 좋았어요

이수정 / 사업관리기술처

'추억의 사진관'을 관심있게 보고 있습니다. 어제의 오늘을 볼 수 있어서 흥미롭습니다.

이태규 / 원)토목건축기술처 대리

독 · 자 · 에 · 게

사보 「KOPEC family」는 KOPEC 가족 여러분들(직원, 가족, 협력업체, 유관기관 등)과 함께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KOPEC family」에 대한 의견제공은 우편, 전화, 팩스 또는 이메일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 446-713,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57 한국전력기술 홍보팀 / **전화** : 031-289-3023 / **팩스** : 031-289-4419 / **이메일** : flonei@kopec.co.kr

제44회 전기의 날 국무총리표창 수상

김은기 처장

원자로계통설계처 김은기 처장은 4월 10일 제44회 전기의 날 기념식에서 전기산업에 이바지한 공로로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하였다.

김은기 처장은 영광 3,4호기 원자로계통 공동 설계에 참여하여 한국표준형원전 설계 수행, 원전 설계기술 도입 참여 등 원자력기술자립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였고 건설원전 및 가동 중 원전의 안전해석업무를 총괄함으로써 원전의 안전성 증진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등 전력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해왔다.

KOPEC MAN